

---

碩士學位論文

李箕永의 初期 農民小說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 英 希

1991年 12月 日

---

THE STUDY OF LEE KI-YOUNG'S  
EARLY PEASANT NOVELS

Young-He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Byung-Taek,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0

# 李箕永의 初期 農民小說 研究

指導教授 金 炳 澤

金 英 希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1年 12月 日

金英希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1年 12月 日

## 목 차

|                                       |    |
|---------------------------------------|----|
| 1. 서 론 .....                          | 1  |
| 가. 연구 목적 .....                        | 1  |
| 나. 연구 방법과 범위 .....                    | 3  |
| 다. 연구사 .....                          | 4  |
| 2.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背景 .....              | 8  |
| 가. 프로문학과 농민소설의 관계 .....               | 9  |
| 나. 20,30년대의 農村社會의 窮乏化 現狀과 農民의 삶 ..... | 11 |
| 다. 李箕永의 幼年時節 體驗과 文學意識.....            | 14 |
| 3.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特性和 展開 樣相.....        | 18 |
| 가. 農民의 批判的 現實 認識과 自覺의 世界 .....        | 19 |
| 나. 農民의 集團意識의 生成과 抵抗의 具體化.....         | 29 |
| 다. 農民의 積極的 集團 對應과 展望의 提示.....         | 39 |
| 4.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文學史的 意義 .....         | 53 |
| 5. 결 론 .....                          | 55 |
| 參考文獻 .....                            | 58 |
| Abstract .....                        | 62 |
| 부록1. 李箕永 年譜 .....                     | 66 |
| 2. 李箕永 小說 目錄.....                     | 70 |
| 3. 李箕永 研究 關係 資料 目錄 .....              | 75 |

## 1. 서 론

### 가. 연구 목적

본고의 목적은 1920-30년대 한국 프로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리얼리즘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민촌 이기영의 농민소설의 배경과 전개양상을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고찰하는 데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제 침략이라는 민족사적 운명과 더불어 근대문학사는 프로레타리아 문학과 그 대립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 문학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한 부정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한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은 192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적인 조류인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에 수입되자, 그것은 곧 노동자, 농민의 변혁의지와 결합하게 되었고 후에 민족해방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유행처럼 농민소설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도 이러한 카프 문학운동의 성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더구나 오늘날 이기영 소설의 연구자들이, 1930년대 후반 프로문학운동이 쇠퇴하자 이기영 소설들에 나타나는 문학과 사상성도 따라서 퇴조했다고 지적하고 있음은, 그 당시의 프로문학운동의 관점을 떠나서는 그의 소설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무력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이기영에 대한 평가는 그의 문학적 전성기나 오늘날에나 거의 일관된 모습이다. 즉, 당대 프로문학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비중있는 작가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문학적 형상성이 높은 농민소설의 작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데 그것들은 첫째, 그의 소설이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에 토대를 두고 카프의 운동 노선에 충실한 소설을 썼다는 점<sup>1)</sup>과 둘째, 정치 투쟁, 목적 의식만 앞세웠던 당시의 프로 작가들과

1)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 연구, 일지사, 1990.

는 달리 농촌에 토대를 둔 개인적 체험에 근거한 비교적 문학성이 높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의 농민소설들은 식민지하인 1920-30년대의 한국의 실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민족문학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점 등이다.

본고는 이러한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하면서 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학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카프문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작은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이기영 소설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라서 단편적으로만 언급되어 왔을 뿐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 이유는 지난날의 문학 외적 요인으로 인한 연구의 공백이 당시의 문학운동에 대한 몰이해를 낳았고 이기영 소설들에 대한 연구도 자유롭지 못하여 한국 농민문학사를 보다 깊고 폭넓게 연구하는 데 큰 제한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우리 농민 소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민'을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존재인 농민으로, 농민소설에 반영되는 '농민생활' 역시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적 조건에 구속된 구체적 생활<sup>2)</sup>로 파악한다면 이기영 농민소설은 이제 비로소 역사성과 현재적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다.

위와 같은 토대에서 본고는 1930년대 전후의 이기영의 농민소설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당시 농민소설들이 시대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시대 상황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려 한다. 프로문학의 수입이 설령 외부적인 것에 치중되긴 했지만 그 사상의 전개가 식민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관련해 당시 수탈이 가장 심하게 자행됐던 한국의 농촌현실과 카프 문학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이기영 농민소설의 특성과 전개양상을 고찰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밝혔던 또 하나인 목적인 초기 농민소설의 특성과 변모양

---

2) 류양선, 1930년 전후의 한국농민문학론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 6.

상을 실제 작품을 통하여 구명하려 하는데 이것은 시기별 변모양상을 항목별로 세부화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이기영 소설들의 중요한 특징인 작중인물과 사상, 기법은 미학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주지하듯, 예술 형상이 생활의 본질적 진실을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고 생활 자체의 형식에 따라 현상적 진실과 본질적 진실이 예술 형상 가운데서 통일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면 이기영의 소설에 나타난 리얼리즘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의 농민소설의 미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카프의 사상의 전개에 따른 문학 이론의 변모, 농촌사회에 자본주의 문명이 침투하는 과정, 그에 대한 대응을 작품의 전개과정을 통해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농민문학 일반론을 둘러싼 논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특히 그의 소설의 특성을 통하여 문학과 사회, 내용과 형식의 상호영향관계를 밝히려는 의도와 관계된다.

이러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기영의 소설이 우리 근대 문학사와 소설론의 체계 속에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는가도 저절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의 개인사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1920-30년대 한국의 농민소설의 주류를 설정하는 문학사적인 측면, 그리고 프로문학의 이론과 창작의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과도 연관을 갖게 된다.

#### 나. 연구 방법과 범위

民村 李箕永은 1924년 부터 1945년 까지 대략 小説 100여편, 戯曲 2편, 評論 60여편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월북하여 북한에서 100여편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sup>3)</sup>. 이러한 외형적 사실들은 이기영의 문학유산이 양적으로 적잖음을 말해줌과 동시에 그의 작가적 역량 또한 여타 작가들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3) 권영민, 「월북 작가 및 작품 연보」, 『월북 문인 연구』, 문학사사, 1989. p. 404-411. 「한국근현대민족문학총서, 이기영선집」, 『작품연보』, 풀빛, 1989. p. 466-474.

문학사에서 그가 끼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기영은 당대의 여느 작가에 못지 않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이기영의 농민소설 중 문학적 형상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1924-1934년 까지의 초기 작품이다. 1934년 이후에도 작가가 농민소설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시기로 국한한 것은 확립되지 않은 그의 문학세계를 일정한 영역에서나마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기영이 카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카프의 왕성한 운동기와 작가의 세계관의 변모양상을 알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이기영의 소설들 중에서도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초기 농민소설 중에서 작품의 내적 연관성과 시기를 고려해서 각각의 유형을 고찰할 수 있는 작품을 두 편씩 선정하고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려 한다. 이 구분은 본고에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한 것인데 카프의 변모와 당대 한국 내부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문학이론의 수용과도 관련하여 설정한 구분이므로 문학운동사적인 측면이 부분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2장에서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고찰로서 이기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930년대 전후의 시대 상황과 그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체험이 농민소설에 반영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의 농민소설에는 농민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또는 농민의 속성이나 특수성을 적절하게 묘사한 부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당시의 실상과 소설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장은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전개과정을 작품들을 통하여 고찰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각 시기별의 작품을 3단계로 구분하고 농민소설의 내적 변모양상과 프로 문학운동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사회·역사적 의미를 구명하고 이 시기의 이기영의 농민소설들에 사회경제사적 토대인 하부구조와 소설적으로 형상화된 상부구조가 동질성을 띤다는 전제에서 그것의 본질도 함께 밝혀 보고자 한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짚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이기영의 농민소설이 한국 근대문학사 속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다. 연구사

지금까지 이기영의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0, 60년대의 냉전체제로 해서 다른 월북작가나 프로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농민소설 중에서도 李光洙, 沈熾, 李無影 등 민족주의 축의 농민문학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가능했으나 오늘날까지도 이기영에 관한 연구는 일천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월북작가들에 대한 해금조치가 취해지고<sup>4)</sup> 카프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간간히 진행되어온 성과들로 그의 정립되지 않는 연구사를 재구해 보기로 한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략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그가 월북하기 전인 1950년 이전의 비평들이다. 주로 카프의 지도 이론에 따른 개별 작품론들과 감정적이고 피상적, 주관적인 인상 비평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는 아직 작가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였고 카프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때이므로 당시의 평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기의 이기영의 문단 활동이나 카프와의 관계, 문우관계, 세계관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다.

1926년 윤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품론이 있으나<sup>5)</sup> 구체적인 작품론은 1931년부터 안함광이나 백철에 의해 농민문학론이 대두되면서 활발하게 되어졌다.<sup>6)</sup>

민병휘의 「民村 故郷論」<sup>7)</sup>은 매우 주관적이며 감상적 비평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故郷」이 농촌을 중심으로 생겨진 자본주의 시기 농촌 전경을

4) 1988년 7월 월북 문인에 대한 대규모 해금조치가 취해졌으나 북한에서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조소문화협회·조소친선협회 위원장 등의 고위 직책 역임 경력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기영은 홍명희, 한설야 등과 함께 미해금 작가로 남아 있다.

5) 윤기정, 「이기영씨의 창작집 <민촌>을 읽고」, 조선일보, 1928, 3, 20-23.

6) 안함광, 「로만 논의의 계과제와 <고향>의 현대적 의의-장편소설 검토」, 인문평론13, 1940, 11.

백철, 「리얼리즘의 재고」, 사해공론9, 1937, 1.

7) 민병휘, 「민촌의 고향론」, 백광, 제3호, 1937년 3월.

누구보다 잘 그렸고 그 속에 움직이는 인물들의 가는 길을 너무나 사실대로 그렸다고 거듭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박승국은 이기영의 작품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사상, 작품, 문장 등으로 나누어 그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를 성실하고 진실한 혼의 소유자로서 일반 문인과 크게 구별된다고 평가하고 있다<sup>8)</sup>.

이외에도 현민, 송영, 박영희, 유진오, 한설야 등은 공통적으로 이기영이 지닌 인간적 매력을 거론했는데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 친분에 따르는 정실비평이 대부분이다.

金南天은 작품 구조적인 측면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는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이며 예리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작품에의 사상적 변모까지 추출해내는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이기영 농민소설의 문학사적 위치에 관한 글들이다. 이기영 농민소설에 대한 분석은 20-30년의 공백 속에서 개론서, 통사 등의 카프 문단을 기술하는 자리에 혹은 민족주의 농촌문학을 거론하는 자리의 맞은편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다가 지난 70년 김윤식이나 이재선, 정한숙, 조연현 등의 문학사를 통하여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호웅, 이주형, 서경석, 한형구, 오양호 등에 의해 비로소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기영의 문학사적 의미가 농민소설에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 리얼리즘 소설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작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sup>9)</sup>

8) 박승국, 「이기영 검토」, 풍림 제6호, 1937년 5월.

9) 김윤식, 「문계적 인물의 설정과 그 매개적 의미」,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81. = 한국리얼리즘 소설 연구, 탑, 1987.

정호웅, 「1920-30년대 한국경향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

정호웅, 경향소설의 변모과정, 김윤식 외편, 한국 리얼리즘 소설 연구, 탑, 1987.

이기영론 리얼리즘 정신과 농민문학의 새로운 형식, 김윤식 외편, 한국 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8.

이주형, 1920년대 한국 프로문학의 한계, 경북대 논문집20, 1975.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1984.2.

김윤식<sup>10</sup>, 정호웅, 이주형, 서경석, 한형구 등은 서구의 이론을 도입하고, 루카치 소설 이론에서 나오는 전형, 문제적 인물, 전망 등에 근거하여 1930년 전후의 농민 소설의 인물과 구조를 이론화하는 업적을 남겼다. 또한 박대호, 이재선, 오양호<sup>11</sup> 등은 그레마스, 바흐핀 등의 구조주의 이론을 원용, 이기영의 농민소설의 구조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김병광, 신춘호, 김준, 조남철<sup>12</sup> 등의 논문은 30년대 농민소설을 폭넓게 다루는 자리에서 문학사의 한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드러나는 대략 세 가지의 유형에서는 묻혀진 역사를 객관적으로 복원한다는 일정한 문학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경석, 1920-30년대 한국 경향소설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7, 2.

서경석, 리얼리즘 소설의 형성, 김윤식 외편, 한국 리얼리즘 소설 연구, 탐, 1987

한형구, 1930년대 리얼리즘 소설의 성격, 한국학보48, 일지사, 1987, 가을.

한형구, 농민소설의 발전과정, 김윤식 외편, 한국 리얼리즘 소설 연구, 탐, 1987.

한형구, <고향>론, 권영민 편저, 월북 문인 연구, 1989,

10) 김윤식, 문제적 인물의 설정과 그 매개적 의미, 한국 근대 문학 사상 비판, 한국 리얼리즘 소설 연구, 탐, 1987.

11) 박대호, 근대 사회의식 소설의 세계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8.

이재선, 반항의 시학과 상상력의 제한- 이기영의 <고향>론, 세계의 문학, 1988, 겨울

오양호, 이념지향적 작품군의 구조적 특징,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12) 김병광, 초기 농민소설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90, 국어국문학회, 1983.

신춘호, 한국 농민소설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0.

김준, 한국 농민소설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조남철, 일제하 농민소설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즉 기존의 연구들은 인물, 즉 주인공의 성격의 측면에 논의를 집중시킴으로서 「民村」에서부터 「故郷」에 이르는 그의 작품들 상호간의 텍스트 관계가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기영의 작품 세계의 변모에 대한 일관된 논리의 틀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으며 그 결과 이기영의 농민소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지도 못했다. 그것은 연구 방법론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이 원용했던 유물론, 루카치 소설론, 구조주의 등이 과연 1920년대의 카프 소설에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은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업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반성하면서 그의 농민소설의 변모 과정의 논리성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려 한다.



## 2.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背景

“경험적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형식”<sup>13)</sup>으로서의 시간성zeitlichkeit과 공간성raumlichkeit은 현실의 객관적 반영 구조로서의 소설 속에도 반영된다. “전형적 상황 아래서의 전형적인 성격의 충실한 재현”<sup>14)</sup>을 예술적 목표로 하는 리얼리즘 소설에 있어서 개인의 삶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다양한 변화와 사회적 실천의 과정과 연관을 맺고 있다.

1920-30년대 한국의 인구 비율 중 80%가 농민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농민의 문제가 곧 민족의 문제였고 카프진영의 농민소설들이 역사성을 띠게 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민소설’의 개념의 문제이다. 1920-30년대 한국사회에서 산출된 일련의 농촌을 다룬 소설들에 대해 기존의 논문들은<sup>15)</sup> ‘농민소설’, ‘농촌소설’의 두 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13)v. i. lenin]「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정광희 역, 아침, 1988, p. 186

14)F. Engels, 「Engels to Margaret Harkness in Ldndon」, 「On Literature and Art」, Progress Publisher, Moscow, 1978, p. 90.

15) ‘농촌 소설’과 ‘농민 소설’의 개념을 구분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이재선, “농촌 문학이라는 용어가 다분히 소재적이고 배경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농민문학이라는 용어는 농민의 농민다운 노동의 생활상이나 근경 또는 집념과 같은 감정영역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문학”이다.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1, p. 353.

신춘호, “농촌 취재소설은 그 제재를 농촌에서 가져왔을 뿐 주인공이 농민이 아닌 소설이다. 그러나 농민소설은 그 배경이 농촌임은 물론 주인공이 반드시 농민이어야 하고 농민들의 생활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농민소설 연구, 고대박사학위논문, 1980. p. 12.

백철, 농민소설의 조건으로 농민이라는 주인공과 농촌을 작품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민소설과 계몽주의, 세대16호, 1931, 9. p. 80.

김준, 농촌소설과 농민소설의 개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소재와 주제 그리고 시대적 삶의 반영문제를 들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한 주제의식의 표출이라 말한다. 한국농민소설연구, 태학사, 1990. p. 30.

류양선, “농민문학은 농민현실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하는 농민문학운동과 관련되어있는 하나의 형상형태로 존재하면서, 민족 민중현실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하는 민족민중문학운동의 형상형태로 존재하는 민

대 본고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그 경우를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적인 측면을 고려한 구분으로 '도시소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소설, 즉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말하는 경우.

둘째, 소재보다는 주제를 강조한 개념인데 당대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삶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사회 발전의 핵심계층인 농민을 중심으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설을 말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분해본다면 첫째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농촌소설'이며 첫째와 둘째의 경우를 다같이 포함하는 것은 '농민소설'이다. 이외에도 3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김유정이나 박영준의 소설들은 농촌소설 속에서도 이광수의 '흙'이나 심훈의 '상록수'와는 구분되는 개념 규정이 따로 필요하리라고 여겨진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농민소설'은 '농촌소설'보다 훨씬 협소한 개념이 되며 1920-30년대의 한국문학사상 '농민 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앞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이기영의 소설들은 위의 구분에 의거할 때 농촌소설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農民小說'임을 전제해 두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소설 문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회 배경의 구조와 객관적 현실의 다양한 영향 속에서 발현되는 작가의 삶의 구조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기본향으로 당시의 시대상황과 농촌의 실상, 그리고 작가의 체험이 그의 문학에 반영되는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 가. 프로문학과 농민소설의 관계

죽 민중문학의 부분문학이다". 1930년 전후의 한국농민문학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8. p. 8.

홍기삼, "단순히 농촌, 또는 농민의 이야기를 단순한 소재 또는 배경으로 그려 준 작품과 농촌 혹은 농민을 그리되한 시대의 전모를 진지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문학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민문학론, 농민문학론, 신경림편, 온누리사, 1983.

프로 문학의 전성기로 나타나는 1926년 이후의 한국 문단은 20년대 中期를 넘어서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세계적인 변화와 한국 사회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문학사적인 흐름으로 볼때 새로운 사조가 사회적으로 풍미하기까지는 기존의 환경이나 문단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우인데 1920년대 중반에 탄생되어 근 10년간 한국문단의 판도를 형성했던 한국의 프로문학은 국내적으로 일제 식민지 하라는 한국 사회의 암담한 현실과 전대의 병적 낭만주의, 지식인을 위시한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암울한 도피주의의 반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현상이었다. 그것은 또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레닌이 약소 민족의 독립을 주장한 사실에 영향을 받고 사회주의와 연결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하려는 경향과 1925년 조선 공산당이 조직된 것 등이 문단의 판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한국의 카프의 조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신경향파'의 등장이었다.

1910년대말과 20년대 초의 문학 일반의 특성이 객체 우위로서 민족적인 것에 억압된 비마찰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면 1925년경의 신경향 문학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러나 현실의 환멸이나 도피가 아닌 현실 개혁의 방향으로 무섭게 나타났던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점진적인 강화 체제 및 세계적 위기 등으로 우리 민족이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에 이처럼 현실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실로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는데 사회운동으로서는 동아일보가 주축이 된 브나로드 운동과 문화 보급 운동이 있었고 문단에서는 프로 문학 축의 농민 문학과 함께 민족주의 축의 농촌 계몽 소설이 함께 등장하게 된다. 이처럼 민족주의 축과 프로 축에서 일정하게 농민을 소재로 한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소재의 범주를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의 한국의 농민 계층이 전체 사회경제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상이라는 인구 비율의 측면과 이들이 더할나위 없이 빈곤하고 무지했다는 사실은 당시 민족을 염려했던 지식인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두 입장은 농촌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하려했느냐에 따라서 문학적 형상화에 엄청난 차이를 보

었는데 양측의 입장을 잠시 알아본 후 논의를 전개시키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민족주의 입장은 언론 및 종교 단체의 농촌운동과 연결된 것인데<sup>16)</sup> 농촌 야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맹퇴치운동, 농민, 노동자계몽과 생산 향상, 근검절약, 위생상태개선, 폐풍교정 등을 내세우는 등 농민교화운동을 통한 민족의 역량의 신장을 우선시하였다. 이광수, 이무영, 심훈 등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주안점은 다름아닌 문화적 계몽운동과 경제적 자립운동이었다.<sup>17)</sup>

그러나 이들은 당시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엽적인 해결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오류를 범한다. 다시 말해서 농민을 사회변혁의 담당주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이 전혀 결여된 채 도시 지식인을 내세워 자기 희생적인 계몽운동으로 일관하였다는 점과 일제의 구조적 수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때로는 노골적으로 친일적 경향<sup>18)</sup>을 드러냄으로써 민족해방운동에 역행하는 역할조차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sup>19)</sup>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기영을 비롯한 프로문학 측에서의 농민문학은 농촌의 궁핍의 근본적 원인이 일본 제국주의의 구조적 수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농촌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는 반봉건적 생산관계의 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걸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민족주의 측과는 상이한 관점인데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정치, 사회적 억압 아래 신음하던 당시의 한국의 농촌의 실상을 파악한 전술 형태의 하나이다. 그러나 카프는 위와 같이 타당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카프의 農民

16) 민족주의 측의 농촌계몽운동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문자보급운동과 천도교와 기독교 계몽의 농민단체에 의한 계몽 운동 내지 협동조합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17) 류양선, 1930년전후의 한국농민문학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0, p. 82.

18) 1922년에 나온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최남선의 「조선민시비론」은 그 당시 민족계몽주의 작가들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19) 이광수는 '조선 민족운동의 삼기초사업' 동광, 1932, 2에서 민족운동을 문화 운동으로 유도하여 절대독립론, 독립전쟁론의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일제 문화운동에 타협하는 글을 발표하여 사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文學論은 무엇보다 빈농중심의 계급적 입장을 내세워 급진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실제의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여 예술성의 결여라는 비판의 소지를 남기고 말았기 때문이다. 일부 카프의 맹원들 중에는 농민문제의 해결을 통한 민족의 해방의 관점보다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주안점을 둔 급좌적 경향의 작가들이 다수가 있어 문학적 기량의 성숙보다도 운동의 역랑에 힘을 모으는 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기영을 비롯한 몇몇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지도비평이 내세운 이론의 지도에 매몰되어 有産階級과 無産階級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킨 후 무산계급의 승리라는 도식적 구조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카프 작가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이기영이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성장 과정의 체험과 일본 유학시절에 습득한 사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카프의 맹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카프의 이념을 잘 수렴하고 독창적인 창작 기법으로 문학적 형상성이 높은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다른 카프 작가와는 구별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 나. 20. 30년대의 農村社會의 窮乏化 現狀과 農民의 삶

농업은 한반도 국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오랜 농경문화 전통의 유지를 가능케 해 왔지만, 기실 농업에 종사하는 한반도 농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국가경제를 주도해 온 그들의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급한 것이었다. 20) 과거 봉건사회의 농노적 예속은 관료계급과 봉건제후의 권익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조선조에 있어서도 중앙 진출을 노리는 강력한 지방관료와 봉건 토호들이 야합하여 농촌을 그들의 수탈 대상 지역으로 삼게 됨으로써 농민들이 피폐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농민에 대한 수탈의 행위는 1910년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는데 일제의 침략이라는 민족사적 운명과 더불어 수탈의 주체가 외세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그들의 정책이 “값싼 식량 및 원자재 수탈과 상품판매시장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의 성격을 반영하여 식민지 조선농업에 있

20) 김준, 한국농민소설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2, p. 45.

어서 식량 및 원자재 생산의 증가를 위한 과정”<sup>21)</sup>으로 수탈 구조를 바꾸면서 빈궁하고 피폐한 농민들의 삶은 더욱 몰락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주지하듯, 반봉건적 생산관계로 규정되는 그들의 농촌정책이란 1920년대 초기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산림령 등의 강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농민들이 갖고 있던 제반 권리, 소작농의 관습상의 경작권, 도지권 등이 완전히 부정되고 대다수의 영세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거나 일제가 새롭게 인정한 봉건 지주 계급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됨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 한국농민들은 결집된 힘을 밖으로 표출하는데 익숙해있지 않은 터라 일제의 구조적 수탈을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함으로써 비극의 단초를 마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후 한국 농민들의 몰락은 자작농이 줄어드는 반면 나날이 소작농이 증가해갔으며 더불어 동양척식회사의 토지매입율도 소작농과 더불어 증가해나가는<sup>22)</sup> 제국주의적 수탈구조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당시의 농민 계층의 몰락을 백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토지는 사유제도에 의하여 소수의 지주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지주는 다만 하나의 지주에 그치지 아니하고 점점 자본가화되어 가면서 상업자본가로 고리대금가로 다시 금융자본가로서 출현한다는 것이다. (중략)

이렇게 몰락된 중농층의 일부와 일반 빈농층은 소작관계에서 xxxx 주주의 비 xx적 xx를 받는 동시에 다시 농작물 가격의 폭락과 다액의 부채(소작인은 평균 120원 내지 200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조선 600여 금융조합의 작년(소화 5년)대출고가 1억2천만원)에 얽매어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의 일부는 다시 부채미환보소작료저 등을 조건으로 입도차압(작년 중 입도차압을 한 것이 1천 3백 30여건)이 단행되며 경작권 박탈에 의하여 문자 그대로의 무일물한 농업노동자로 변하게 되고 만다.<sup>23)</sup>

21) 박헌채, 일제식민지 통치하의 한국농업, 한국농업경제와 농민현실, 관악서당, 1979, p69.

22) 淺田喬二 외 7인, 항일농민운동연구, 동녘 출판사, 1984, p. 101. 「표13」 참조.

이처럼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자 농촌의 경제적 압박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농촌계층의 내분을 가져오는 계기로도 작용하게 되었는데 지주계급의 횡포로 소작민들은 소작권을 떼이지 않기 위하여서는 지주의 파행적인 요구인 강제부역이나 반도덕적인 행동, 또는 수확의 배분에 있어서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만 했고 돈에 대한 갈급때문에 농민들 내부에서도 도박이 성행하고 인심이 부재하는 등 농촌의 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시기의 한국의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파는 일' 이외에 별다른 기술이나 살아갈만한 경제적 방편이 없었기에 더욱 비참한 노릇이었다. 그들은 농촌의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소작농으로 전락해 고달픈 삶을 영위하거나 또는 저임금 도시 노동자로 유입되었고 혹은 살길을 찾아 간도 등지로 이주하는<sup>23)</sup> 등의 몰락의 길을 자초해나갔다.

1929년 통계에 의하면 도시 생활자의 32.11%가 면세자로서 무직, 극빈의 상태에 이른다. 그 결과 생존권에 대한 투쟁으로 농촌에서는 소작쟁의가 일어나기에 이르렀고 도시에서는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1920-30년대에 들어와 일제가 그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중국 대륙으로 넓힘에 따라 수탈의 도가 점점 강해지자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한 남도 지방에서 소작인의 지주에 대한 투쟁 과 더불어 본격적인 농민조합의 결성과 소작쟁의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sup>24)</sup>은 그 동기가 농민들의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해오던 한국의 농민들이 이 시기에 극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이에 따른 외부적인 표현들을 감행하였음을 잘 증명해주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표를 통하여 당시의 연도별 소작농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작쟁의의 연도별 추이를 고찰함으로써 당대 농민소설이 태동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23) 백철, 농민문학문제, 조선일보, 1931, 10, 11

24) 한 통계에 의하면 1910년 9월부터 1925년 말까지 간도, 만주 등지에 이주한 사람의 수가 278,339명에 달한다고한다. 간도로 이주한 한국농민의 전형은 최서해의 대표작「홍염」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25) 淺田喬二 외 7인, 항일 농민운동연구, 1984, p29

「표 1」 조선농민의 토지 점유율의 연도별 추세 (單位 : 千戶)  
(증가 +, 감소-)

| 계층<br>년차 | 자작농 |     | 겸소작농  |      | 순소작농  |      |
|----------|-----|-----|-------|------|-------|------|
|          | 호수  | 증감  | 호수    | 증감   | 호수    | 증감   |
| 1917     | 517 | -   | 1,061 | -    | 989   | -    |
| 1920     | 529 | +12 | 1,016 | -45  | 1,082 | +93  |
| 1923     | 527 | -2  | 951   | -65  | 1,123 | +41  |
| 1925     | 525 | -2  | 895   | -56  | 1,193 | +70  |
| 1929     | 507 | -18 | 885   | -10  | 1,283 | +90  |
| 1932     | 476 | -31 | 742   | -143 | 1,546 | +263 |

「표2」 소작쟁의의 연도별 추이(1920-1935)  
(단위: 건)

| 1920 |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1930 |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
| 15   | 27   | 24   | 176  | 164  | 204  | 198  | 275  | 1590 | 423  | 726  | 66   | 305  | 1975 | 7544 | 25834 |

위의 표에서 드러나는 바처럼 192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농촌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을 드러낸다. 일제의 구조적 수탈에 의해 자작농이 감소해가는 대신 소작농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사회의 경제적 압박은 갈수록

26) 김문식 외, 일제의 경제 침략사, 일제하의 한국 연구총서2, 민중서관, 1984, p. 37.

27) 淺田喬二 외 7인, 항일농민운동연구, 동녘, 1984, p29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표2」에서는 당대 농민들의 결집된 힘을 표출하는 소작쟁의가 1920년대 후반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농민소설이 태어나게 된 현실적 조건을 뒷받침해 준다.

이로써 지식인을 자처하는 카프 성원들은 일제히 대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그 일원이었던 이기영은 수탈과 착취라는 일제 하의 삶의 특징을 반영하고 그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써 작가적 출발부터 농민소설을 쓰게 된 것이다.

#### 다. 李箕永의 幼年時節 體驗과 文學意識

작가에 대한 傳記 研究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더군다나 이기영의 경우 그가 겪어야했던 성장체험은 그의 작품 속에 잘 드러나지만 다른 월북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월북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무하다시피한 상태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그의 작품의 기초를 '성장 체험'과 '카프 가맹'에 있다고 전제했고 또한 연구 범위 및 대상이 월북하기 전인 초기의 작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의 문학의식이 형성되는 카프 가맹까지를 중심으로 삶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논의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民村 李箕永은 1895년 忠南 牙山郡 排芳面 回龍里에서 출생하였다. 집안은 덕수 이씨 충무공파로써 아버지 이민창은 20세에 무과에 급제한 때로부터 官界에 야심을 품고 서울 유력가의 식객으로 머물며 야심을 실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집안을 돌보지 않아 가난한 살림은 더욱 심해졌다. 이기영의 진보적 성향에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보아지는 아버지는 호탕한 성격에 술을 좋아하는 개화사상가였는데 뒤에 郡守 安瑋善(安漢의 아버지)과 함께 天安私立寧進學校를 창립하여 그곳에서 충무직을 맡기도 했다. 시대조류에 떠밀려 완전히 설자리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세에 따라 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갔는데 구한말 식민지 초기 中間階層(신분적으로는 양반 하층, 경제적으로는 中産層)이 밟았던 몰락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이기영의 성장기간인 유년기는 나이 4세되던 해 부유한 친척이 사는 天安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는데 친척의 땅을 소작하는 살림은 아버지가 없는

집안을 어머니 혼자 도맡아 꾸림으로써 유년기 기억 중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기억 속에 각별히 남아 있다. 이때의 삶의 공간인 천원군 북원면 상, 중, 하엄리는 빈농과 화전민들이 주로 사는 곳으로 이기영의 성장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의 소설의 지속적인 무대인 농민 소설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기영의 성장 과정과 문학적 동기는 성장 후에 쓴 몇 편의 회고조 수필에서 직접 밝히고 있다.<sup>28)</sup>

1906년 어머니가 타계하자 그는 '마치 광명한 천지가 별안간 암흑으로 변한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후 마음을 들곳 없어 고대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서당에서 공부하다 아버지의 발기로 창설된 天安私立寧進學校에 입학하였는데 이때 신소설 「치악산」을 읽고 그 주인공들처럼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와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활동하는 애국자가 될 것을 몽상하였다 한다. 그리고 14세 때인 아직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이기영 자신의 조혼에 대한 반발인지 그의 여러 작품들에는 조혼에 대한 폐습과 이로 인한 불행한 결혼생활을 그린 내용이 많다. 그후 농사를 짓다가 수년간 남한 일대를 방황하면서 농촌, 광산, 제방 공사장에서 날품을 팔며 무산자 계급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였는데 이것은 논산영화여고 고원, 호서은행 등에 근무하는 등의 다양한 계층의 체험과 더불어 훗날 작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이기영의 이러한 행적은 어릴때의 꿈인 해외유학으로 이어지면서 또 한차례 굴절을 겪게 되는데 3.1운동 후인 1922년 4월 초에 친구와 함께 동경유학을 떠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때문에 가난한 살림을 무릅쓰고 떠났던 고학의 길은 그러나 순탄치만은 못했다. 동경 정칙영어학교에 입학했으나 대서소 필생 노릇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그동안 친구는 노동판을 쫓아다니다가 직업적 사회운동가를 택했다 한다. 작품 중에서도 이 친구의 모습은 간혹

28) 당시의 이주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뒤에 친척의 소작을 한 것으로 보아 아마 '가난한 삶'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9) 노변야화, 조선일보, 1934, 1, 14-26, 4회 연재  
나의 수업시대, 동아일보, 1937, 8, 5-8, 3회 연재  
문학을 하게 된 동기, 문장, 1940, 2.

드러나는데 일본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의식화된 뒤 귀향하여 농민들을 지휘하고 단합시키는 전위적 인물인 '홍수'의 박건성으로 이기영은 묘사한다. 한편 친구로부터 처음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거기에다 고리끼 등 러시아 및 소비에트 작가의 작품을 애독하면서 문학의 꿈을 키워나갔다. 여기서 이기영의 문학관을 지배하게 된 주목할만한 사실은, 다른 카프 맹원들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상류계층의 자녀들만이 가능했던 일본 유학을 거치면서 그곳의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던 것과는 달리 이기영은 사회주의 체계의 작가의 작품을 읽으므로써 사상을 키워나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후에 그가 이론에 능한 카프 평론가가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실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생활은 그리 오래는 지속되지 못하였고 1923년 관동재 지진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고 귀국하였는데 이기영은 이를 "「고향」의 주인공 김희준이보다도 더 초라하게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 이듬해인 1924년 봄 「開闢」 창간 4주년 기념 현상작품모집에 「오빠의 비밀편지」가 3등으로 당선하여 문단에 데뷔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국 문단에는 이미 사회주의 사상이 태동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시점이었다. 이기영은 문단을 계기로 1925년 봄, 아주 서울로 올라와 胞石 조명희의 알선으로 조선지광사에 취직하는 한편 아무런 사상적 주저도 없이 카프에 가맹하게 되는데 이는 이기영의 창작 생활과 세계관의 발전에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카프에 가맹하기까지의 이기영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문학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내가 만일 모친상을 일찌기 당하지 않았던들 나는 그때 이야기책을 탐독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따라서 문학과는 인연이 멀어졌을지도 모른다. 모친이 생존했을 때에는 비교적 명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순에 사랑하던 어머니를 여윈 뒤에 나는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성격을 이루어갔다.

모친은 바로 건너다 보이는 안산에다 묘를 썼다. 나는 조석으로 산소를 바

라보며 모친을 생각하였다. 밤에 자면서 남모르게 베개를 적신 적도 있었다.....<sup>30</sup>

더불어 불행했던 과거와 함께 그의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은 가난에 대한 경험과 농촌 생활의 비참함이다. 부친이不在한 집 안에 소작을 하여 근근히 여섯 식구가 살아가는 살림은 갈수록 '부채만 늘어가는' 것으로 서당 훈장의 곡량(수업료)을 못내 '외상글', '동냥글'을 배워야만 했으며 종이 한장, 붓 한자루를 살 수 없어 감나무잎을 주어다 글씨를 쓰던 비애를 맛보아야만 했던 그는 "내가 아홉, 열살 무렵에는 빈궁이 극도에 달하였다"<sup>31</sup>고 회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과 가난으로 남아있는 故郷 概念은 삶의 뿌리에 관련된 것이며 그의 문학의 산실이자 헤어날래야 헤어날 수 없는 '운명' 그것과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작가는 경험한 것만 쓸 뿐이고 쓰고 싶은 것을 쓰는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을 쓸 뿐인지도 모른다. 이기영에게 있어서도 유년기의 경험은 그의 소설의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 '가난'을 탈피하기 위한 원초적 몸부림이었다. 더불어 성장 체험을 통해서 겪어야 했던 당대의 여러 삶의 질곡들 또한 그의 문학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보아지는데 이것은 '카프에의 가맹'으로 그를 이끌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30)이기영, 「문학을 하게 된 동기」, 문장 제13호, 1940, 2.

31)이기영, 나의 수업시대, 동아일보, 1937, 8, 5.



### 3.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特性과 變貌 樣相

프로 문학 운동의 진영 안에서 농민문학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사회운동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소련 공산당은 하리코프 대회<sup>30)</sup>에서, 당시 아시아 및 한국의 현실에는 농민계층의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의 지침으로 한국의 작가들에게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언명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카프에서도 농민문제를 民族解放運動의 중심 과제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1930년 이후 카프가 농민문학을 戰術形態로 내세운 후 유행처럼 당대 작가들이 농민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영향을 받은 일이다. 그런데 이에 앞선 1925년 경부터 이기영이 농민소설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1925년에 나온 「가난한 사람들」과 1926년의 「民村」, 「農夫 鄭道龍」등 일련의 소설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오늘날 평자들이 이기영을 카프의 지도 노선에 충실한 작가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의 문학관은 이기영의 유년 시절의 체험과 밀접하며 애당초 그의 문학적 본령인 농민 소설은 카프가 농민문학을 주창하기 훨씬 이전부터 벌써 본궤도에 올라 있었던 셈이다. 이것은 이기영이 카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문학관을 형성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이기영의 문학적 성과가 농민소설에 있다고 할 때 어느 한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의 농민소설은 「民村」으로부터 시작하여 근 10여년에 이르는 동안 굴절되고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故郷」에 이르러 그 頂點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 각각 나타나는 개별적인 모습에서 대표적 본질을 찾아 볼 수가 있으며 그의 농민소설에 나타나는 주제는 변용되면서도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30) 하리코프 대회란, 소련 우크라이나의 수도 하리코프시에서 1930년 11월 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행해진 「국제혁명작가동맹」(Internationale Vereinigung der Revolutionar-en Schriftsteller) 제2회대회를 이른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井上正藏, 독일 프롤레타리아문학, 문학, 1958년 11월호, p.174 참조

이 一連의 소설들의 전개 양상을 밝혀내는 것이 이 장에서의 目標이다.

이 장에서는 이기영 농민소설의 전개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民村」(1925, 12)을 비롯한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인 「故鄕」(1934, 9)까지를 시기별 3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굴절되는 방식과 특징, 성격을 제시한 후 실제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究明하는 演繹的 方式으로 전개하려 한다.

그의 작품은 시기별로 전개양상이 뚜렷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주제의 상호 이동이라 할 수 있는 전체 작품들 간의 영향관계가 크므로 이들 구조의 力動的인 生成過程을 해명하는 것은 이기영의 농민소설을 고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리얼리즘을 규정하는 제일의 척도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체험과 작가의 주관적인 체험의 일치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 인식이 역사발전의 과정 속에서 올바른 전망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 동시에 소설 구조를 사회 구조에 대비시켜봄으로써 소설의 발생론적 의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 가. 農民의 批判的 現實 認識과 自覺의 世界

-「民村」, 「農夫 鄭道龍」을 중심으로-

1924년 「開闢」지에 「읍바의 비밀편지」로 등단한 民村은 1925년 8월 카프 결성의 주요 멤버로 참여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다. 胞石 趙明熙의 알선으로 「朝鮮之光社」에 취직하는 한편 「開闢」지와 「朝鮮之光」誌를 중심으로 일련의 경향소설을 활발히 발표하여 창작 생활과 세계관의 발전에 주요한 전환점을 만든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는 「가난한 사람들」, 「쥐 이야기」, 「농부의 집」, 「어머니의 마음」, 「民村」, 「農夫 鄭道龍」 등이 있는데 대개가 체계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현실성의 확보에 미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빈궁의 묘사는 관념이 덜 다듬어진 생경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만 신경향파의 생활문학론의 실천이라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生活文學論은〈時代의 變化-生活의 變化-美 概念의 變化〉라는 도식으로 압축되는데 시대나 생활이 바뀌는 것에 따라 예술도 상대적으로 변천하는 종속적인 것이며 또 예술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대나 생활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생활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던 소박한 文藝理論이었다. 33) 그런데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아무런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외적 현실을 개선하는 기능으로서의 문학과 당대의 지식인인 작가들의 대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문학론은 후에 김기진과 박영희가 “사회운동과 握手한 예술운동”을 실천방안으로 내세울 즈음엔 과학적 체계를 갖춘 계급문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져서 34) 카프 출현의 매개항이 되었다. 崔曙海의 일련의 작품들이나 朴英熙의 「산양개」 등이 이 시기의 특성을 잘 말해주는 작품들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기영의 「民村」과 「農夫 鄭道龍」이 이들과 달리 두드러지는 것은 반봉건 의식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적 출발부터 현실적 조건과 관계하는 농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인물 유형을 창조함으로써 뒤에 카프의 농민 문학론의 선편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작품 「民村」은 충청도의 향교말이라는 농촌을 배경으로 친일 지주 박주사 집안의 착취와 횡포, 소작 농민의 궁핍한 생활과 자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기영이 이 작품에서 착취의 근본으로 설정해 놓은 지배계급인 박주사 집안은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는 식민지 지주로서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주지하듯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한국 농촌을 그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구조화했는데 그것의 내용은 과거의 지주권을 일제법상의 지주로 다시 인정하여 대체로 兩班 계층인 지주층을 식민지적 지주 계층으로 재조직하여 야합함으로써 식민지 봉건체제를 구조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35)

33) 홍정선, 신경향파 비평에 나타난 생활문학의 변천과정,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110

34) 위의 논문, p54

35)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80, pp68-71

이같은 배경 하에서 새롭게 생겨난 당대 지주층의 모습이 바로 박주사 집안이다. 박주사는 향고말 40여 호의 民村에 동척 마름이며 면협위원이고 금융조합 서기직 등의 감투를 다 쓰고 있으면서 온갖 횡포를 부린다. 박주사의 아들은 소작권을 미끼로 마을의 부녀자를 상대로 축첩행각을 태연하게 자행하고 심지어 16세의 어린 소녀 점순이까지 벼 두섬으로 맞바꾸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점순에게 있어 이 상황은 어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릿고개를 넘겨야 한다는 생존의 절박함과 부친 김첨지의 우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다. 이에 대하여 안함광은 '부르의 승리와 프로의 굴복'<sup>36)</sup>이라고 지적하고 이 작품에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다음과 같은 농민들의 대화는 이러한 당대의 지주층의 변질을 잘 말해준다.

참말로 예전 양반은 양반다운 행세가 있었다네!

박주사 兩班 같은 것은 양반탕반 개 팔아 두냥 반 만도 못한 것이 무슨 양반이라구? 예전 양반은 돈을 알면 못쓴됐는데 지금 양반은 돈을 잘 알아야만 되나부데. 그이도 돈으로 양반이지, 만일 돈이 없어보게, 누가 그리 대단히 알겠나. 그러니까 그개 돈이 떨어지는 날에는 양반도 떨어지는 날이란 말일세. 그러니까 돈을 제 할아버지 신주보다 더 위할밖에. 우리네 가난한 사람의 똥갑대기를 벗겨서라도 돈을 더 모으자는 것은 좀 더 양반노릇을 힘있게 하자는 수작이지.<sup>37)</sup>

그러나 이처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새로운 양반의 주변에는 '칼 찬 순사나 군직원들이 출장을 나오면 으레히 그 집으로 먼저 와서 내냐, 내냐, 막 터놓고 戲領受(남과 실없는 말이나 짓을 함)를 하고 보통학교 훈도까지 가끔 나와서 술잔을 기울이는'<sup>38)</sup>등 일본제국주의와 결탁하거나 혹은 그들의

36) 안함광, 농민문학문제재론, 조선일보, 1931, 10, 27.

37) 이기영, 「민촌」, (「카프대표소설선1」, 사계절, 1988), p. 195.

38) 이기영 「민촌」, (「카프대표소설선1」, 사계절, 1988), p. 197.

비호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일부 계층의 삶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민들의 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 이기영 소설에 반영된 농민들의 삶은 폐쇄적이고 절박한, 고립된 농촌 공동체 내부에서 더욱 피폐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적 수탈 구조 속에서 경제외적 강제라는 봉건적 착취까지 당하는 소작농의 모습이 여실히 그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 작품은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매개적 존재인 지식인이 설정되어 궁핍의 사회적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농민의 계급의식을 일깨우고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계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첫째 한말로 할 것은 돈이 쌀이 아니요, 돈이 옷감이 될 수 없는데-또한 그 쌀이나 옷감을 가만히 앉았는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닌데-어찌해서 누구나 손가락 한 까딱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돈이라도 종이 조각만 가지면 당장에 부자가 되느냐? 그게 벌써 틀린 일이다. 가령 지금 쌀 한 말에 이원을 한다면 그 쌀 한말을 만들어내기에는 봄으로부터 가을까지 전후 비용이-더구나 남의 장리를 얻어서 농사를 진 사람으로서는 지금 그 값에 몇 동감이 더 들었을 것인데 이러한 품값 든 생각을 않고 장사하는 놈들이 제 맘대로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도 불공평한 일이다.....<sup>39)</sup>

이 소설의 지식인인 서울댁이라고 불리는 창순이 농민들에게 하는 말이다. 원래 관이나 제도적인 힘이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의문시하기 전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으로 알았던 농민들이기에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자신들이 그중 쳐다보고 훌륭한 사람으로 알던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하는 까닭'에서도 그렇지만 예로부터 지배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관습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차차 농민들은 유토피아를 열정적으로 說數하는 그의 말

39)이기영, 「민촌」, (『카프대표소설선1』, 사계절, 1988), p. 206-207.

40)이기영, 「민촌」, (『카프대표소설선1』, 사계절, 1988), p. 39

에 눈을 잃고 청취하면서 조금씩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자각을 하게 된다. 예전에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아온 先代부터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농민들의 가난의 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작품의 한계는 농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을뿐 더 이상의 변혁의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숙명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새로운 兩班 계층이 봉건 시대의 양반과는 다른 양식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發展'의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는 한계에 도달한다.<sup>41)</sup>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지식인인 창순은 농촌의 폐쇄성과 고립성을 타파하고 '發展'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적극적인 인물로서 그 기능을 가진다. 오늘날 평자들에 의해서 문제적 인물(*problematique heros*)<sup>42)</sup>, 媒介的 인물, 예외적 인물(*individu exceptionnel*)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 일련의 주인공들은 이기영의 농민 소설에 일관되게 등장하여 작가의 이상을 대변해주고 현실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삶은 농촌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농민과는 달리 도시를 체험하거나 선취된 의식을 가진 지식인이기 때문에 예외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작품의 지식인인 창순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세상 형편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잠재된 의식을 각성시키며, 농민들의 삶과 외부 세계와의 연관성을 확인시킨다.

41) 이러한 숙명론과 보수성은 우리 민족의 오랜 농업문화 가운데서도 농민들이 삶이언제나 피폐했으며 이러한 현상을 형상화한 문학 작품이 1920년대 이전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밀접하다. 즉 농촌의 낙후는 누구에게도 새로운 사실이 아닌 관심밖의 영역이기에 농민 스스로조차도 무자각을 초래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기영을 비롯한 당시의 카프의 농민문학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42) 루카치에 의해 설정된 문제적 인물은 타락한 세계인 이 세계와 공동격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을 일컫는다. 일상인의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 현실의 모순을 성격의 모순으로 드러내는 인물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G. Lukacs, *Realism in our Time* (Harper & Row 1964), p. 28

그러나 농촌을 계몽하는 지식인 창순의 역할은 농민들이 아직 미몽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선취된 지식을 가지고서 농민을 설교하는 부분에서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서 당대의 李光洙 류의 계몽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작가는 당시 농촌과 농민의 피폐한 생활을 한 빈궁한 삶의 모습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로만 이해했을 뿐 일제 강점하의 역사적, 사회적 삶의 구조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삶의 배후를 정확히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무방향적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표출하는데 그쳐버린다. 서울댁인 창순이 이 작품의 중심 스토리와는 유리된 채 존재할 수밖에 없음도 그 때문이다. 이들의 의식은 현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며 외래적이며 先驗的인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농민들의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창순은 당시의 농촌문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민족해방이라는 문학운동의 관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존의 농촌공동체에 대한 복귀를 꿈꾸면서 만인을 위한 만족과 행복과 조화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아나키즘적인 사상에 빠져있다는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극단적인 오류를 범한다. 아나키즘<sup>43)</sup>은 1920년대 초 김화산을 중심으로 마르크시즘적 경향과 함께 일본에서 수입되었다. 미래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에의 원리를 가진 이 사상은 원래 1927년경 카프가 目的意識論으로 방향전환하기까지 카프 조직에 합류되어 있었는데 이기영은 그 당시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는 가장 진보적인

43) 일종의 유토피아사상인 아나키즘은 1920년대 초 한국에 수입되었는데 1920년대 중반에 들어 마르크스주의자인 임화와 아나키스트인 김화산의 이론적 논쟁이 한때 대단 했었다. 루카치를 인용한 藏原惟人に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을 각각 자본주의사회의 병적 예술과 비판적 리얼리즘을 거쳐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나아가는 사회주의 체제 속의 예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수입된 아나키즘은 그 자체의 이론적 미숙과 동시에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표방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위세에 눌려 미미하게 사라지고 말았는데 김화산은 아나키즘 예술에 대한 하등의 이해나 규정이 없이 다만 외부의 간섭없는 예술만이 아나키즘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공격하여 다다이즘, 표현파, 초현실주의 등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으며 힘을 규합하지 못해 후퇴하고 말았다.

계급인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적 해방이라는 문예운동의 현 단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파성에 입각한 역사적 전망을 획득하지 못한 채 과거의 농경공동체에의 복귀라는 농민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아나키즘과 혼동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창순의 설교는 이 당시의 이기영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같이 벌어서 부자와 가난이 없이 산다면 그때야말로 이웃은 진정으로 정답고 사랑하고 싶어서 오늘은 너집에 모이자, 내일은 우리집에 모이자 하고 즐기며 뛰놀 것이다. 그때야말로 공중에 나는 새도 인간의 행복을 노래하고 땅위에 피는 꽃도 사람의 즐거움을 웃어줄 일께다..... 낮에는 햇빛 밑에서 일하고 밤에는 달 아래서 하루의 피곤한 몸을 쉬는 천만 사람이 다같이 일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sup>44)</sup>

이러한 아나키즘적 유토피아는 1926년에 발표한 「쥐 이야기」나 「農夫鄭道龍」에서도 나타나 당시의 작가의 사상이 아나키즘에 경도되었음을 구체화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가치는 오히려 농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상민들의 생활 속에 내재한 삶의 애환이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간적인 모습들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상민들의 마을 속에 내재한 계급 모순, 혹은 그것들이 가져오는 삶의 애환이나 고통 등을 다루면서 젊은이다운 사랑의 열병에 빠지거나 방아찰기, 길쌈 등의 흥겨운 노동요를 삽입하고 목적의식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게 아닌 무력한 농민의 편에서 농민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휴머니즘적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빈궁 현실에 대한 암담함이나 투쟁의지보다도 농민적 활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실감있게 묘사되고 있는 공동 노동의 재현 장

44) 「민촌」, 위의 책, p. 212.



면, 혹은 소박하나마 자유스럽고 공평한 농촌 공동체의 이상이 절구꾼들이 노동 중에 민요를 부르는 장면 등에서 형상화되는데 다음과 같은 묘사는 농민적 활기의 가장 힘찬 표현이다.

절구꾼들은 더욱 세차게 내리치으며 모두 신명이 나서 역개가 웃쑥  
웃쑥 하여졌다. 어떤 년은 팔자조아/금의옥식에 싸혔는데 /이내팔  
자 손터지네/아이구지구 쿵더쿵/  
이번에는 수돌이 처가 이렇게 받자 잇대여서 성삼이 처가 또 바뻏다.  
시뉘잡년 화냥년!/말전주는 왜하누?/콩밭고랑 김멜적에 /정든님을 어  
찌라구/일사절사 쿵더쿵!④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또 하나의 대표작 「農夫鄭道龍」은 당대 농촌사회의 핵심구조와 긴밀히 관련되면서 비록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고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적 인물을 창조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農夫 鄭道龍」의 무대도 마찬가지로 民村이다.

주인공 정도룡은 청직이었던 아버지가 백정의 딸 아니면 무당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으로⑤ 날품팔이 머슴살이를 거쳐 머슴살던 집 교전비였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여기와 농사짓고 살게 된 사람이다. 그는 견문이 넓고 남다른 생명력과 인생 경력을 지녔으며 건강한 체력과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그의 이름이 근사한 것을 기회로 그를 모두 계룡산 정도룡이라 불렀다. ....고양이 있는 집에서 기를 퍼지 못하고 사는 생쥐같이 지내는 이 동리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힘을 얻었다. 그래 이 동리 사람들은 어른 아이 없이 그를 참으로 정도룡같이 믿으며 그의 말이라면 모두 복종하게 되었다. 물론 이 동리의 크나 적은 일은 그의 계획과 지휘로 해결되었다.⑥

45) 「민촌」, 위의 책, p. 205.

46) 이기영, 「농부 정도룡」, 개벽, 65호, p. 68.

47) 위의 책, pp. 50-51.

이렇게 형상화된 農夫 鄭道龍은 최하층 출신의 소작농이라는 점에서 「民村」의 창순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작품에서 지주로 나오는 김주사는 도평의원, 전 금융조합장, 전 보통학교 학부위원, 전 군참사, 적십자사 정사원, 지주회 부회장 등의 감투를 쓰고 있는 위인이다. 그는 「民村」에서의 박주사와 마찬가지로 당대 지주층의 구조적 특징을 전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인물로서 소작인들을 제집 하인처럼 부려먹을 뿐만 아니라 또 소작인의 소작권을 자신의 이해에 의해 마음대로 빼앗아버리는 인물이다. 이러한 지주·소작인의 관계를 작가는 이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흥미를 강자에게 늦기게 하는 것은 논고에 몰린 송사리떼일 것이다. 물은 자갈자갈 미구에 자저부틀 지경인데, 잔인한 陽炎은 저들의 생명수를 劑一劑으로 빨어간다. 그 속에서 오물오물하는 송사리떼! 아! 죽임의 최후의 공포를 늦기고서 서로 살라고 애씀인지? 꼬리를 맞부딪치다가는 물밖으로 튀어진다. 그러는 놈은 보기 좋게 순간에 숨어버린다. .... 이것은 약자에게 만든 교훈을 준다. (...) 그러나 그들은 장엄한 죽음을 결단하여 최후의 일적(一適)에서 맹렬히 반항한다.■

이 묘사는 '잔인한 陽炎'으로 비유되는 부르조아계급과 '논고에 몰린 송사리떼'로 비유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대립을, 그리고 약자는 최후의 순간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작가의 관념이 작위적으로 삽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구조적인 대립으로 설정된 농촌 사회의 농민들의 전환된 의식을 보여주는 데 그것은 다름아닌 소작쟁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작쟁의는 이기영의 농민소설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당시의 사회구조적 모순이 낳은, 따라서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힘의 표출을 말함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그 당시의 지주·소작인의 전형율, 잔인한 양염·논고에 몰린 송사리떼로 설정하여 당대 농촌 사회구조의 핵심을 드러내려 했으

48)개벽, 1926, 1, pp. 59-60

며 그것을 선명히 묘사하는 계기로서 鄭道龍이라는 媒介의 인물을 설정하였다. 이들의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표출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농촌 사회의 소재들이 동원된다.

김주사는 모심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소작인인 춘이네의 논 다섯마 지기를 떼어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에게 주어 버린다. 기겁을 하여 춘이 조모가 달려갔지만 한나절의 애걸복걸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다 대뜰 위에서 떨어져 죽사하고 만다. '동리에 큰일이 났는데 제집 일만 보러드는 늑놈들도 김주사 가른 늑이다.' 라는 鄭道龍의 호통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례를 치루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농민들은 집단 의식이 제고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집단 의식은 겉으로 표출되지 않은 소박한 형태를 띠지만 당시 농민들의 속성인 小所有者的 특성을 과감히 탈피하고 농촌의 현실을 공동으로 해결하려 협심함으로써 展望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데서 「民村」보다 훨씬 전진적인 측면이 돋보인다. 또한 당시의 농민소설과 달리 본격적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단초를 마련한 것, 그것은 농민 속에서의 주인공의 설정이다. 주인공의 외부세계 체험이 소설 공간 속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도룡의 인생 체험에서 비롯하는 깨어난 의식에 의해 필연성이 확보된다. 그는 최하층 출신의 소작농이다. 폐쇄된 농촌 공간에서 벗어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인생 견문을 익힌 후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인물이기에 농민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폐쇄성과 정체성,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歸農은 無知로부터 자기부정과 회의를 거쳐 새로운 자기정체성의 확립으로, 나아가 궁극적인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농부 정도룡의 귀농은 그 당시 농촌소설에서 유행처럼 행해졌던 「흙」이나 「常綠樹」의 지식인 주인공들의 귀농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소설은 도시를 체험한 전위적 인물의 귀농 활동을 통해 농민들에게 프로의식을 적극 주입시킨다는 작가의 의도가 지나쳐 주인공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투쟁 행위를 용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영웅화시켜버리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계룡산 정도룡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 그리하여 그의

말이라면 모두가 복종할 정도의 압도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의 말미에서 정도룡이 홀로 김주사를 찾아가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자, 보복이 무서워 김주사가 그에게 땅을 주는 것은 폭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신경향파의 모습을 그대로 체현한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가의 아나키즘적 세계관이다. 앞서 「民村」에서도 드러났지만 작가는 현 단계의 농촌의 모순인 지주·소작인의 대립관계를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나마 농촌을 도시와의 연계 속에서 국가적 단위와 연관시키지 못하고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의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국가와 체제를 비판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한계이다..

그것은 정도룡의 다음과 같은 독백을 통하여 확연히 나타난다.

..... 허위의 신은 정의를 가장하고 이 세상을 정복한다. 너희의 도덕, 법률, 정치, 예절-그것은 모두 허위무성이다. .... 우리는 우리의 로동으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만하면 고만이다. 혹시 큰일이래야 술주정꾼이나 내외간의 싸움하거나 그러치안으면 불양한 놈이 남의 안해를 겁탈하라는 것가튼 일일것이다. 그러나 그런것은 우리도 잘 재판할수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달리는 모다 저희놈들이 꾸미고 잇스면서 아! 뉘더 우리네보고 우악한 백성은 다스려야 한다고?..... 법률인지 무엇인지 그런것은 무식한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제가 버려서 제각기 먹고 사는 우리 가튼 농민에게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케 우리 일을 우리가 처리하고 잇다.....■

농촌의 폐쇄성과 당시 한국 문단에 마르크스주의와 구별이 안된 아나키즘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이기영의 작품들의 결말이 모두 무정부주의적이거나 유토피아, 공동체주의를 역설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기영이 아나키스트가 아니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카프의 최대의 이론가이자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임화가 처음에

49)이기영, 「농부 정도룡」, 개벽66호, p. 48.

아나키스트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본다면<sup>48)</sup> 카프는 1925년에 출범을 하고서도 내부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을 확연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봄이 보다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기영의 이 시기 작품은 정호웅<sup>51)</sup>의 지적처럼 초기 경향 소설의 두 갈래 경향 즉, 전망(Perspective)<sup>52)</sup>의 부재와 전망의 과장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부터 문제적 인물이란 새로운 인물 유형의 성공적인 창조와 구체적 현실의 핵심적인 모순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반면 당시 카프 소설이 범했던 과도한 관념성과 생경한 이데올로기의 작품 전면에의 노출 등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소설 속에 녹아 들지 못한 한 흐름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民村」과 「農夫 鄭道龍」으로 대변되는 이기영의 제 1기 소설들은 작가가 농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공동체주의라는 작가의 이데올로기가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民村」은 農民小說을 지향하는 이기영의 첫 작품으로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농민계층을 계급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는데, 이것에 의해 작가의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는 1920년대의 농촌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民村」은 한 마을의 농민적 공동체를 단위로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농민적 삶의 양상을 다양하고도 폭넓게 구현하고자 했던 점, 또한 이 시기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지주·소작인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모순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농민 계층의 계급적 각성이라는 이 시기 농민 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처음으로 작품화

48)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p120.

임화, 어떤 청년의 참회, 문장, 1940, 2, p 22-23.

51) 정호웅, <1920-30년대 한국경향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52) 전망이란 작품에서 제시하는 미래의 목표설정(Zielsetzung)을 가리키는 리얼리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의 하나인데, 루카치에 의하면 한 사회의 발전 과정을 어떤 인물의 행위와 사고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요약한다. P. Ludz(hrsg), Schriften Zur Literatursoziologie(Luchterhand, 1977) p. 256.

한 것이라는 점에서 획기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한 지주·소작인의 대립이라는 당대의 구조적 모순을 최초로 폭로하고 폐쇄적인 농촌 공간을 열려진 세계로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개적 인물을 설정하여 그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다른 소설들과 두드러지게 구별된다.

「農夫鄭道龍」은 농민 속의 문제적 인물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였다는 데서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당시의 계급집단을 대표하는 김주사와 농부정도룡을 중심으로 지주의 소작권의 횡포라는 당대 농촌 사회의 핵심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만 하던 농민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농민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가 지나쳐 주인공을 영웅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건의 해결방법에 고대소설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준다. 또한 소설의 주제가 개념화되지 않은 감정의 표출에 머물러 있으며 역사적 전망을 획득하지 못한 채 농촌 공동체와 추상적 유토피아를 희구하며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카프문단에서 아직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가 유착되어 미분화상태에 놓여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나. 農民의 集團意識의 生成과 抵抗의 具體化

- 「洪水」, 「賦役」을 중심으로 -

1927년 초 카프는 최초의 이론논쟁인 내용·형식 논쟁을 거치면서 '자연생장으로부터 목적의식성으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라는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전환에 힘입어 소위 제1차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불세비키화'로 표방되는 이 1차 방향전환은 회월·팔봉 간의 논쟁에서 카프가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인데 전대의 아나키즘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종래의 부분적 투쟁, 조합주의적 투쟁에서 대중적, 전체적 투쟁이라는 정치투쟁의 슬로건을 내세워 문학운동으로서의 작가의 활동이 전체 사회주의 운동의 한 부분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였다.<sup>53)</sup>

53) 이 시기 카프의 방향전환은 아나키즘과의 논쟁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가능했는데 이것은 김화산과 임화의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이루어진 논쟁에서 잘 드러난다. 김화산, 「계급예술의 신전개」, 조선문단, 1927, 2

이처럼 문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것을 전면에 내세운 제 1차 방향전환 이후 카프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상은 가히 카프가 이론의 폭주라 할만큼 다양한 것이었다. 또한 이 논쟁은 당대의 작품들과도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쟁이다. 그 중에서도 이기영의 소설은 불세비키화론과 대중화론, 농민문학론에서 특히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상은 앞으로 논의의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카프가 1차 방향전환을 하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출판부장을 맡은 이기영은 전대의 농민문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제1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단순한 생활고와 그로 인한 절망 상태의 묘사에 치중했던 신경향파의 자연발생적 문학 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인물의 유형을 창조하여 농민집단의 투쟁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작가의 확고한 세계관이 형성되어 명확한 주제 의식과 함께 이전에 발표했던 농민 소설의 양식을 이어가면서도 리얼리즘의 확대, 심화라는 독자적 작품 세계를 추구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카프 작가라면 누구나 다 그러하였지만 이 시기 이기영의 농민 소설 역시 당시 카프 평단의 논의와 매우 밀접하므로 기조 고찰로서 그 당시 문단에 반향을 일으켰던 카프의 제1,2차 방향 전환과 이러한 정세 속에 이루어진 카프의 농민문학론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928년 12월 7일 코민테른<sup>54)</sup> 정치서기국에서 채택한 12월테제는 조선 혁명은 토지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의 혁명단계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단계로 규정하였다. 코민테른의 지시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자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족혁명운동을 타협적 민족개량주의자와 분리시켜 그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sup>55)</sup>”이 급선무라 하고 부르조아 민주주의

임 화, 「錯覺的 문예이론-김화산씨의 愚論 검토」, 조선일보, 1927. 9. 7

54) 제3인터내셔널 (Communist International)(1919, 3-1943, 5):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세워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 민주주의적인 경향을 철저히 배제함과 동시에, 세계 혁명의 제일선으로서 프로핀테른과 각국의 공산당을 지도하였는데 1920년 제2차 대회에서 레닌의 「농업 및 식민지 문제」의 테제를 채택했고 1928년 제6차 대회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의 위협에 대한 이른바 공산당의 무장을 결의했고 1935년 제7차 대회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노동자의 통일전선·인민전선운동을 결성하였다.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도하에 전개되는데는 반드시 토지문제가 민족혁명에 이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농민문제가 결정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농민 속에 세력을 강화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공동운동으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대중에게로, 특히 농민대중에게로”<sup>55)</sup>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1930년경부터 합법적 농민조합을 비합법적 농민조합으로 개편하여 조직된 적색농민조합은 1935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항일 농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전체 사회운동 속에서의 농민 운동은 카프내에도 영향을 끼쳐 프로문학 속의 농민운동은 다시 1928년에 들어서 예술대중화 논의와 리얼리즘 논의를 거쳐 점차 볼셰비키화의 관점을 보이게 되면서 작가들에게 일정한 당의 지침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당의 문학, 전위의 눈’을 강조하는 볼셰비키화의 경향은 창작방법론으로서 변증법적 리얼리즘, 또는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을 정착시키면서 토지혁명의 주체로서 농민대중이 중요시됨에 따라, 농민문학론을 주창하고 그에 따른 창작방법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기영은 카프가 제1차 방향전환을 하면서 핵심멤버로 부상하여 누구보다도 당의 지침을 잘 알았던 작가였다. 따라서 이 시기 이기영의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카프가 볼셰비키화의 과정에서 창작 지침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농민의 소작쟁의가 어떻게 형상화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기영이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농민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카프의 노선에 충실한 것은 아니며 이 前代부터 그가 끈질기게 집착해 왔던 농민의 문제를 카프의 창작방법론에 의해 형상화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이기영의 소설은 작가의 독자적 작품세계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연속성과 카프의 창작방법의 수용이라는 시의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야 그 정당한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이기영의 前代 소설이 농민집단의 공동체적 형상화가 우위를 점하고 리얼

55) 강만길 외, 한국현대사회운동사전, 열음사, 1988. p262.

56) 강만길 외 앞의 책, p262.



리즘의 역사적 측면이 제시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면 이 시기 이기영의 소설들은 소작 농민의 궁핍한 삶이 그 전대보다 훨씬 세련되며 풍부한 필치로 그려져 나갔으나 불세비키 創作方法論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목적의식이 한층 강해지고 전망의 제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밋머느리」, 「원보」, 「조릿드는 사람들」, 「洪水」, 「賦役」 등이 이 시기에 산출된 작품인데 전대 작품에 등장하는 농민들의 폐쇄적, 보수적인 면에서 탈피하고 전위적 인물에 의해 농민 계층이 프롤레타리아군으로 조직화하는 경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이전에 비해 확고해진 작가의 의식이 돋보인다. 이처럼 전위적인 인물의 매개는 불세비키화의 방침에 의한 것인데 농민계층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조직 방면에 직접 경험이 없으며 의식화된 노동자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아닐 것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대의 수세적 소작농의 모습은 사라지고 공격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특히 「農民小說集」(1933)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일컬어지는 「洪水」는 前衛的 人物의 媒介에 의해 농민들이 숙명적 체념을 극복하고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깨어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 시기의 「民村」과 「農夫 鄭道龍」이 농촌 현실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신경향파문학에서 프로문학으로 이행하는데 발전적 계기로 작용했다면 「洪水」, 「鼠火」는 이러한 계열의 연속 선상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이라함은 前期에 표현됐던 빈궁의 현실이 더욱 리얼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民村」이나 「農夫 鄭道龍」에서 막연히 드러났던 지주-소작인의 대립관계가 확연해지고 농민들의 조직화 경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이전에 비해 작가의 세계관이 더욱 확고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洪水」에 나타난 당시의 농촌 현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아래 골목 간난네 집도 이러케 죽을 지경이여서 그의 부친은 어린 간난이를 올 봄에 제주도 섬에서 온 배사공에게 줌살 한 푸대를 받고 팔어 먹었다. .... 한참 춘궁 무렵이라 보리고개를 압

돈 마을 사람들은 모다 양식이 떠러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돈에 갈급이 났다. 그래 무슨짓을 하든지 돈을 버리보라고 발버둥 이를 쳤다. 흑뿔이 김서방은 간밤에 뒤스 동산에서 금뿔이를 주슨 꿈을 꾸었다고 망치를 둘러메고 산으로 치다렀다.....투전 잘하는 원식이는 린근통으로 노름판을 차저단넛다....광성이는 점순네가 물내 술을 해먹는 것을 군청 술조사 단이는 관리에게 밀고하였다. 그는 범축자를 고발하면 xx의 눈에 잘 보여서 논마지거나 어더볼가 함이었다.....그러나 광성이는 밀고했다고 땅 한 되지기를 엇지 못하였다.....<sup>57)</sup>

궁핍할대로 궁핍해져서 인간성이 무시되고 인심이 부재하는 k강가 T촌이라는 民村의 열악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 마을은 열다섯의 나이에 방적공장의 노동자로 T촌을 떠났던 박건성이 일본에서 귀향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그는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며 투옥까지 경험하게 되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인데 이 마을의 폐쇄적이고 무비판적인 농민들의 심층부를 자극하여 T촌을 각성시키려는 전위적인 매개인물이다. 그런데 박건성이 당대의 농촌계몽의 지식인과 다른 것은 겨우 보통학교를 졸업할만한 학력에도 불구하고 선취된 일본 노동의 경험으로 마을 사람들을 단결시킨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가 펼치는 활동은 그 당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流行처럼 행해졌던 夜學이나 青年會 등의 諸活動을 의미하는데 농촌계몽이나 문자 보급의 차원이 아니라 농민들의 투쟁의식의 고양이라는 의미에서 구분되며 이처럼 노동자화되어 귀향한 박건성은 이기영의 전대의 소설인 「民村」이나 「農夫鄕道龍」에서 보여지던 '先知者'나 '영웅'으로서의 先驗的 추상성을 극복하게 된다. 이기영이 평범한 농민이지만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위적 매개인물을 만들어낸 이유는 당시 중요과제였던 노농동맹을 추구하려는 작가의 적극적 노력과 동일한 맥락에서 농민계층을 노동자 계급으로 이해하려는 작가의 의도 때문이다. '勞動組合'의 결성이나 '青年會' 조직 등을 통해 농민계층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고 그들이 공동운명

57)「홍수」, 이기영, 농민소설집, 별나라사, pp. 12-13.

체임을 느끼면서 서로 결속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달라질 줄 모른다. 그래서 농민들은 마침내 소작쟁의를 일으킴으로써 문제에 정면으로 대결한다.

이것을 소설의 전개에 따라 구조화해보면, 前衛 知識人の 登場- 前衛와 農民들의 유대-前衛에 의한 登場人物들의 團結-, 組織的 鬪爭 -目標 達成(小作爭議) 이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당대 카프의 창작 유형이 그대로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光洙의 소설들이 지식청년 귀향-농민계몽, 농촌개화-희망적 미래의 豫報<sup>58</sup>로 구조화되는 과정과는 다른 것이다.

당대 사회의 주요 모순이 농민의 계급적 현실에 놓여있음이 분명했으므로 대개 이 시기 작가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틀을 통하여 토지관계에 의한 지주·소작인 관계로 부터 발생한 農民組合活動과 小作爭議로 나타나는 사회적 諸矛盾을 표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어떠한 조직 속에 소속된 작가의 예술성이 과연 조직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보다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당시의 카프 작가들은 개인의 창작물로 지배 세력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고 공동 이념하에 대응력을 키우려 한 것이었는데 이기영의 경우 1차 방향전환 이후에 나타난 작품들이 과연 그 전대의 작품들보다 우수한가 하는 점은 많은 평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이기영 자신에게 있어서도 懷疑的이었던 것 같다.

…… 그러나 나는 정확히 고백하면 목적의식을 운위할 때부터 나의 창작 실천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그것은 나의 태만이 그때 그때의 단계에 있어 그의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의 창작 이론을 잘 소화하지 못한 때문이라 하겠지마는 여하간 나의 작품에 그것을 구상화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많은 동지들은 그때마다 우수한 이론을 소개 해석하고 비판함에 따라서 나 자신도 맞장구를 쳐왔지만 다시 창작의 붓을 들고 생각해 볼 때는 도무지 어떻게 써야

58)오양호,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p18.

만 할지 .....(중략)

참으로 어떻게 써야만 목적 의식적이요, 변증법적 창작 방법 이라?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만 이 스토리들에 가위를 늘리고 말 았던 것 같다. 그것은 변변치 않으나 소위 신경향파 시대의 나의 작품이 목적 의식의 이후의 작품보다 형식적으로는 다소간 우월 한 점이 있다는 것이 더욱 그렇게 생각된다. 나는 그때도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으나 우익적 경향을 무서워서 감히 발표할 용 기를 가지지 못하고 금일에 이르렀다. 59

그러나 작가의 이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발표되었던 「洪水」, 「賦役」은 카프의 지도 평단에 의해서 고평을 받음으로써 아이러니컬한 양상 을 보여준다. 당시 카프 진영은 동경유학생을 중심으로한 인텔리 비평가들 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작가를 절실히 요구하던 상 황이었는데 문학적 소양과 농촌의 체험을 절실하게 가지고 있던 이기영의 등장은 매우 뜻깊은 것이었으며 그래서 그는 불과 두어 해만에 카프의 거물 급 작가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대의 카프와 밀접했던 비평가 박승국은 이기영의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 이기영씨의 洪水는 (중략)봉건적이고 자기를 비웃기 만 하던 T촌 사람들의 눈을 띄워 주기 시작해서 (중략)洪水 때에 얻은 경험과 아울러 농조지부를 결성하고 결국에는 조직 적 쟁의에까지 들어갔으며, T촌은 아주 부락의 고성을 이루었 다는 것이다.

同氏作 賦役도 역시 흠잡을데 없는 역작이다. (중략) 이 부당 한 賦役을 통해서 단결의 힘을 깨닫고, 농조지부 결성에까지 진전하게 된것이 이 소설의 전생명이며 또한 장점이라고 하 겠다. 부분적으로보아도, 아무런 틀림이 있는 것을 발견치 못

59)민촌생, 사회적 경험과 수완, 조선일보, 1934, 1, 25.

하겠다.....■

위와 같은 평가는 카프의 제2차 방향전환에 따른 불세비키적 대중화의 방침에 충실한 견해로서 두 작품이 농민조합 지부결성을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농민의 혁명성을 드러내고있다는 사실에서 高評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면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 시기 이기영의 농민 소설인 「洪水」와 「賦役」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3」. 「洪水」와 「賦役」의 敘事 構造

|               | 洪水                          | 賦役                     |
|---------------|-----------------------------|------------------------|
| 1. 긍정적 인물의 등장 | 박건성-(일본에서 귀향한 전위 )          | 원식(소작농)                |
| 2. 지주-소작인의 대립 | 지주 정고령의 부당한 賦役과 소작료 징수      | 지주 강참봉이 부당한 賦役을 시킴     |
| 3. 매개 상황의 부여  | 전위적 인물에 의한 농민조합과 야학실시       | 賦役을 하다 근행이 부상 당함.      |
| 4. 계기 부여      | 洪水에 의한 피해 때문에 소작료 삭감 요구(대립) | 부당한 賦役의 철폐와 치료비 요구(대립) |
| 5. 소작 정의      | 소작정의를 위한 농민조합 결성과 단결        | 소작정의와 농민조합 결성          |

위에서 제시한 유형은 불세비키화의 창작 지침에 따른 여타 카프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김남천, 권환 등 다른 프로작가들이 조직 투쟁의 간결한 표현으로서 선동, 선전을 피한 것과는 달리 이기영의 소설들에는 소작농민들의 집단적인 삶의 모습이 다른 작가들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작품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성공적인 묘사, 자연재해라는 예외적, 우연적 상황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공동체적 생활과정과 농민운동의 변모양상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다는 데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

60) 박승국, 농민소설집-농민문학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1933, 12, 10

이것은 1930년을 전후하여 드러나는, 작가가 몸담고 있는 사회 전체에 내재된 본질적 모순의 첨예화와 이에 따르는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이라는 작품 외적 측면 그리고 텍스트간의 상호이전성이라는 작품의 내적 발전 등이 형상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의 카프 소설의 목적이 농민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투쟁의 길로 이끌어 올리는 것이라면 이기영의 「洪水」와 「賦役」은 그 한 예로서 그것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농민의 조직적 투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 했던 제2기 이기영 소설의 특징의 하나는 「民村」이나 「農夫 鄭道龍」에서처럼 전대의 지식인 개인의 독자적 깨우침에서 더 나아가 농민들이 스스로 공동체적으로 뭉침으로써 농민 집단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인데 이것은 당시의 농민들을 폐쇄적인 집단으로부터 투쟁의 대열로 이끌려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결미에서 주인공 박건성이 小作爭鬪 중 검속되었는데도 나머지 등장인물이 집단적으로 항거를 계속하게 되는 것은 농민들이 전위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뭉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모습은 「故郷」에 이르면 더욱 구체화되어 주인공의 모습은 거의 다 사라지고 주체화된 농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주인공의 성격을 과장시키지 않으면서, 강조점을 집단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전개는 이기영의 문학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당대 카프 문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다른 작가인 김남천, 권환의 소설들인 「공장신문」, 「목화와 콩」, 등에서의 현실 인식이 등장인물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이념을 전달하는 인물로 설정된 전위의 주인공에 의해 설파되어지고 쟁의를 달성하는 도식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그렇다. 농민 문학의 궁극적 목표가 독자인 농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나아가 현실의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게 하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게 하는 역사적 의미의 농민소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이기영은 당대의 문학운동의 측면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고 그에 따르는 문학적 형상화의 능력도 겸

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이기영 자신의 농촌 체험과 밀접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카프 문학의 맹점이 농촌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작가들이 評壇의 創作方法論에 의해 추상적, 도식적인 작품을 만듦으로써 전망의 과장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이기영은 당대 농민의 존재 방식에 대한 적극적 인식의 결과 구체적인 삶을 발견한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한 수확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는 부분적으로 목적의식기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전대의 개화기 소설에 나타나는 계몽적 요소가 삽입돼 있어 작가의 역사의식을 의심케하는 대목도 있다. 한 예를 들자면, 농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재현하기 위해 삽입된 완득과 음전의 결혼식 장면에서 혼인, 매매혼인, 정략결혼을 비판하면서 재래의 결혼식의 허위와 허식을 버리고 간단한 예식을 할 것을 주장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작품의 형상성보다 목적의식을 위주로 한 작품에서 드러난 결과인데 비록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측면의 媒介裝置로서 필요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이기영의 소설들 역시 이광수소설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다음 해 발표된 「賦役」을 통해서 극복되고 있다.

이 당시 토지소유 관계에서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했거니와 지주는 그들의 필요나 감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소작농을 빼앗거나 혹은 소작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착취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소작인들은 그들의 생명과도 다를 바 없는 소작권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일을 요구해도 거절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상황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賦役」이다.

「賦役」에서는 당대 소작농민의 극히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인 賦役의 상황이 제시 되 이 와중에서 발생한 근행이의 사고 (팔이 부러져서 잘름)가 媒介事件으로 설정되어 농민 현실의 구체적 모순이 구현됨과 동시에, 이로 부터 발의되는 소작쟁의, 농민 조합의 결성이 농민의 자생적인 힘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61 김윤식, 문체적 인물의 설정과 그 매개적 의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p. 3.

강참봉집 창고 짓는 賦役은 근행이의 팔이 부러진 뒤에도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러지안어도 요새 한참 밧분때-모자리 갖구고 논갈고 보리밭매고 미구에 모를 내야할 판인데 막걸니 한잔 안주는 乾賦役을 발켜 몇칠재하는 그들 작인은 여간 불평이 잇지 안른 터에 불행히 근행이가 그러케 떠러져서 중상이 되엇는 데도 치료비까지 안무러주라는 강참봉의 심사에는 순하기 양과 가튼 그들도 와락-역증이 떠올랐다.

.....그들의 이 공통한 불평은 차차 한덩어리로 멩치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때 강참봉집에서는 「래일 또 광터골 사람들은 일제히 賦役을 나오라」는 기별이 왔다. 날이 저물자 동리 사람들은 저녁을 머고 하나 들씩 정침지 마당으로 모혀드러서 강참봉집 옥을 비빨치듯 하고 잇슬때 근행이 모친은 설거지를 하고 나와서 오날 아침에 강참봉 마누라에게 당한 소조를 눈물을 흘니며 이야기하였다.(중략)

..... 그들이 이날밤중까지 서로 모혀서 의론한 결과는 각 동리 작인 일제히 래일 아침에 강참봉집으로 물너가서 다시는 賦役을 식히지 말 것과 근행이의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조건 등으로 진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교섭위원으로 각 동리마다 두 사람씩을 미리 뽑아노키로 하였다.....

「賦役」은 이처럼 부당한 노동인 賦役을 강요하는 강참봉의 횡포에 대항하여 소작인들이 일어서게 되는 과정과, 이를 통하여 소작쟁의와 농민조합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농민들이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과정이 당대 현실인 「賦役」이라는 상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洪水」의 우연적 상황보다는 훨씬 실감이 난다. 그러나 「賦役」은 전형적 상황을 잘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媒介的인 힘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인물의 유기적 통일을 이루지 못해 전망의 부재라는 부정적 측면을 노정한다. 즉 농민들이 결합하여 사회변혁

62) 「부역」, 이기영, 농민소설집, 별나라사, pp. 55-56.



의 주체로 등장하는 모습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결집된 힘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농민조합을 결성하는 지점에서 마무리됨으로써 당시 사회운동의 지침인 미래에의 전망을 불분명하게 내보이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카프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인데 불세비키화론에서 제시된 창작지침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념적 선취의 과도함을 잘 소화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기영의 제2기 소설들은 1927년 카프의 방향 전환 이후에 발표된 소설로서 불세비키화에 따른 당대의 勞動爭議나 小作爭議를 현실의 역사적 발전과정 위에서 그리려는 적극적인 모색들이었다.

「洪水」는 목적의식기에 발표된, 카프 진영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 역작이다. 한편 작품 전개상에서 볼때도 이 작품은 전대에의 극복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돋보이는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노동자화된 전위적 인물이 투입되어 농민들을 결속시키고 결국에는 농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쟁의를 일으키는 방식은 당시의 사회주의 방침인 노농동맹의 구조인데 이렇게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최초로 형상화 한 점은 현실의 반영 구조이면서 동시에 작가의식이 치열함을 드러낸 것이다.

「賦役」은 「洪水」의 우연한 상황을 극복하고 당시 농촌의 계급관계의 모순에 따른 부당한 관행이었던 賦役을 소재로 농민들의 집단화 과정과 쟁의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이기영의 이전의 작품이 전위적 인물을 중심으로한 독자적 깨우침의 구조였다면 이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농민 집단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농민들의 이기심이 극복되어 한 집안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을 제시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기영은 문학적 출발부터 프롤레타리아 작가이자 스스로 농민작가임을 자부하여 꾸준히 농민소설을 추구해왔는데 1930년대 초반에 이르러 문단에 농민문학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카프의 지도 비평에 매몰되어 잠시 주춤하기도 했다. 「洪水」, 「賦役」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작품들은 그러므로 이기영의 독자적 세계관의 발전을 드러내는 작품들이고 동시에 카프와의 공동 창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農民의 積極的 集團 對應과 展望의 提示

- 「鼠火」, 「故郷」을 중심으로 -

이기영의 短篇小說을 통해 우리는 조선의 농촌이 일제의 침략에 의해 구조적으로 피폐화해가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에 오면서 작가는 카프에서 내세웠던 '불세비키화'의 지침과 단편의 양식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 1930년대 초부터 나타난 長篇小說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文壇에서의 長篇小說 논의는 그후 카프 내부에서도 행해졌는데 1937년 이후 기존의 카프와 관계를 맺었던 임인식, 김효식, 한병도, 백철, 최재서, 이원조 등 주도적 비평가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長篇小說論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기영은 카프의 長篇小說 논의와 상관없이 短篇小說에서의 경험의 축적에 의해 독자적으로 長篇小說에의 길을 열었는데 이것은 이기영 소설의 변모과정을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1924년 문단에 데뷔한 이래, 식민지 자본주의하에서 양극분해되어 몰락하는 조선 농민의 현실을 그려왔던 그가 「鼠火」와 「故郷」을 각각 중편과 장편의 형식으로 썼던 이 시기는 「民村」으로부터 시작하여 「農夫 鄭道龍」, 「洪水」, 「賦役」 등을 거치면서 습득한 단단한 창작기법과 점점 복잡해지는 당대의 현실에 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서사화 경향을 띠는 '完熟期'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들은 일제의 1,2차 검거로 구속되면서 그 와중에서 쓴 것인데 작가의 정신은 더욱 치열해졌으나 창작의 대한 제한이 뒤따라 작가의 목소리가 내면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면화 경향과 함께 작품 세계는 더욱 더 정제된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농민들의 집단적인 투쟁을 대중적이면서도 평이하고 서정적인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1933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鼠火」는 프로문학의 새 단계를 연 대표적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당시 카프 지도 비평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논란이란 다름아닌 '새로운 기법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임화의 평론에서도 드러나는 바 소련에서 막 수입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쟁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32년 소

련 예술조직위원회에서 창작방법으로 제창되어 1934년 작가동맹의 규약으로 성립된 것인데 작가는 유물변증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접 파악하고 그 현실의 참모습을 형상화하여야 한다는 창작기법이다. 이러한 창작 지침은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론의 비판과 함께 안택에 의해 한국에서도 수용론이 제기되어 안함광, 한효, 임화, 김두용 등에 의해 찬반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처럼 처음부터 순탄치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창작기법이었지만 전대의 불세비키화에 따른 변증법적 리얼리즘의 추종으로 문학의 예술성보다도 정치성과 조직성을 우위에 두는 데에 따르는 문제제기와 일제의 탄압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치의식의 내면화가 요구되었던 카프 문인들에게는 활력소가 되었다.

이 기법이 도입될 무렵에 이기영은 “소설은 소설적 내용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요, 그것은 형상화를 통하여 구상화되어야 한다”<sup>63)</sup>라고 하면서 목적의식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으로의 자신의 문학에 대한 지침을 말했는데 이는 신경향파 시기와 목적의식기를 거치면서 터득한 작가의 변증법적 자기 발견이며 작가에게 있어서는 작품의 발전과정의 한 획을 긋는 의미를 지닌다.

조선일보에 1933. 30-7. 1까지 연재되었던 「風火」는 그의 대부분의 작품처럼 조그만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의 작품과 다른 점은 地主·小作人만이 등장하던 지금까지의 농민소설 양식에서 더 나아가 지주와 자작농, 그리고 마름과 지식인, 농민의 전형으로서의 주인공 등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구조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리얼리즘의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얼리즘이란 1920년대 초기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현실묘사라는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나 현실의 총체적 구체적 인식과 그 표현방법까지 포함하는 창작방법론을 일컫는다. 더불어 전대에서 두드러졌던 적극적인 주인공은 의미를 상실하고 그대신 작가가 새롭게 만든 농민들이 의식의 전이를 통하여 각 개인들의 전형을 추구하고 이들의 공동체 놀이를 통하여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다.

63) 이기영, 문예적 시감 수제, 조선일보, 1933, 10, 27.

농민들은 근대화로 인해 쥐불과 씨름 등의 민속놀이가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대체 오락으로 도박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소작농들이 농사짓는 일을 제외하면 희망을 걸고 열심히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도박'에 오락의 즐거움을 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박마저도 예전의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는 심각하다.

김침지는 소시적에 골패도 해보고 투전도 해서 남의 돈을 따 먹기도 하고 제돈을 잃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때 시절과 지금 시절은 시대가 다르다 하였다. 예전 시대에는 살기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심심풀이로 도박을 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돈에만 욕기가 나서 서로 뺏어먹으려는 賊心을 가지고 노름을 한즉 그것은 벌써 심사가 틀린 것이라 하였다.<sup>64)</sup>

그런데 이처럼 자본주의의 병폐가 만연하고 인심이 흉흉해진 마을에도 젊은남녀의 열기와 정열이 매개가 됨으로써 소설의 긴장감이 확보되고 있다.

가난한 소작농인 돌쇠는 친구인 웅삼이의 소 판 돈을 도박으로 따고 웅삼이 처인 이쁜이와 좋아 지내게 되는데 역시 이쁜이를 좋아하던 면서기 김원준이 마을 회의를 열어 돌쇠를 성토했지만 동경유학생 정광조가 나서 도박이 성행할 수 밖에 없는 농촌 궁핍화와 봉건적 결혼을 비판하고 돌쇠가 김원준의 음모를 질타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난다. 이처럼 예전의 작품들에서 보여지던 전위 지식인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농민의 전형으로 형상화된 돌쇠와 지식인인 정광조의 이원 주인공, 여기에 면서기로 다니는 원준이네, 서당 훈장 경험이 있는 구장, 진흥회 회장이며 마름인 정주사 등 소설의 전개는 여러 계층의 농민들이 오직 구체적인 <개인>으로서만 활동하면서도 각 개인들의 자태를 구

64) 이기영, 「서화」, (『카프대표소설선2』), 사계절, 1988, p. 153.

체적 各樣性 가운데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임화는 그 당시 「서화」에 대한 창작평에서 이 작품이 농민 계층의 생활상과 거기에서 파생하는 농민의 심리적 측면을 치밀한 묘사와 서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을 “우리들의 창작전쟁과 예술적 파악의 이론적 鮮明을 위한 연구와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 아니 근대문학의 여태까지의 예술적 달성의 최고수준의 高處를 걸어가는 것”이라고 극찬하였다. 더불어 임화는 「風火」가 농민 계층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민 계층의 두 가지 속성은 일찌기 레닌이 지적했던 바로서 첫째, 농민은 끊임 없이 프롤레타리아트화하게 운명지워져 있다는 점 둘째, 한편으로는 小所有者的 속성을 끈질기게 간직하게 마련이라는 兩面性을 가리킨다.

이러한 농민의 소소유자적 속성의 문제는 소설 속에서 「洪水」의 박건성과 같은 적극적인 인물이 갖는 계몽적인 성격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지양되고 총체적 사회현실의 묘사를 위한 장편소설의 창작으로 나아가게 되는 한 계기가 된다. 이 시기 농민소설의 주인공들은 전대 소설의 주인공이나 여타의 다른 계몽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이념을 설파하거나 그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당대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 일반 농민들의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성격과 융합하고 있다. 이것은 소설에서의, 당대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묘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장에서 논의한, 텍스트의 내적 연관성의 측면에서 「風火」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작품의 구조는 돌쇠라는 인물의 성격적 요소에 의해 압도적으로 지배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돌쇠는 두루마기를 뒤로 제키고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는 담배 한대를 피어 물었다. 어제 화투판에서 딴 것이다. 이마에 대추씨만한 흉터를 가진 돌쇠는 넘적한 얼굴에 입이 비교적 컷다. 열끼잇는 눈이 그의 건강한 기품과 아울러 남에게 위신이 있어 보였다. 젊은

65) 임화, 「6월 중의 창작평」, 조선일보, 1933, 7, 19.

여자가 더러 반하는 것이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sup>66)</sup>

돌쇠는 30년대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당시 농촌의 전형적인 농부이며 '열끼' 있는 청년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건강한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황폐화된 농촌 현실에서 벅어나는 수단으로 아내의 은비너를 훔쳐 도박판을 벌이기도 하고 집안 살림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예전과는 달리 날로 궁핍해져가는 마을의 경제형편과 자신의 잠재된 생명력을 표출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따른 불만의 표출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쥐불놀이, 줄다리기의 승벽이 쇠하여가는 데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움과 강한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돌쇠는 그 당시 농촌 젊은이의 전형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그의 건강한 생명력은 미래의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는 농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개 무식한 농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비록 「돌쇠」라 할지라도 그에게 전대의 「民村」의 「창순」이나 「洪水」의 「박건성」 같은 역할의 선취된 의식을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돌쇠는 당대적인 「흙」의 허승이나 「常藤樹」의 채영신처럼 지식인들의 속죄양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돌쇠는 농민이라는 계층의 근본 동향 및 본질을 한몸에 구현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지닌 모순을 첨예한 갈등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로서의 당대 소작농민의 전형일 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당대 소작농민의 전형인 「돌쇠」를 훌륭하게 형상화하고 있으면서도 돌쇠로 하여금 미래의 전망을 부여하지 않고 「정광조」라는 지식인을 설정하여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광조는 이 작품에서 삶의 황폐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루카치의 문제적 인물에 한발 다가서 있다. 그러나 정광조의 역할과 작가의 의도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후에 평자들에게 비판을 받을 소지를 남기고 만다. 그는 지주 이참사의 마름인 정주

66), 이기영, 「서화」, (「카프대표소설선2」), 사계절, 1988. p. 134.

사의 양자로 동경서 철학을 공부하다 신경쇠약에 걸려 요양차 귀향한 나약한 지식인이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계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당시의 소작농민에 대립되는 마름의 아들을 내세워 결혼제도를 비판하며 돌쇠를 옹호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여러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작품의 산출 배경을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작가는 이 장품을 장편의 초두라고 규정짓고 그 속편으로 「돌쇠」를 「형상」지에 연재하다가 「형상」지의 폐간과 함께 중단하였다. 따라서 아마 작가의 의도대로라면 이 작품은 다양한 스케일을 가진 이야기의 초두로서 새로운 인물의 의식화를 계기로 농민들과 합류하는 긍정적 지식인의 모습이 형상화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호웅은 「鼠火」는 장편으로 나아갈 여지를 가지지 못한 단편 골격의 작품이라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장르적 논의와 함께 「鼠火」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기영의 農民小說의 일관된 구조를 파괴한 점인데 이것은 장편의 초두로 기획했던 작가의 의도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긍정적 인물의 등장>-<지주-소작인의 대립>-<매개 상황의 부여>-<계기 부여>-<소작쟁의>라는 목적의식기 이후의 農民小說의 서사 구조가 「鼠火」에서는 파격적인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鼠火는 <전형적 농민의 등장>-<농촌의 궁핍화 묘사>-<매개 상황의 부여>-<지식인의 등장>-<구습의 폐해 비판, 새질서 제시>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미 제시한 이기영 소설의 서사 구조가 그 뒤에 나온 작품 「故郷」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鼠火」의 구조는 더욱 파행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정일의 분석을 보면 그는 1920-30년대의 농민소설들을 크게 목적의식기 이후의 프로문학계열의 농민소설과 신경향파 시기의 동맹문학 계열의 농민문학으로 나누고 이기영의 소설들에는 이 두가지 특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농촌 사람들>-<民村>-<鼠火>계열의 農民小說들은 후자에 가깝고 <洪水>-<賦役>-<故郷>계열의 작품들은 전자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독 <鼠火>만 年次的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것은 앞에서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본다.

다양한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장편을 지향하려는 의도와 함께 또한 「서화」는 '취불'과 '도박'이라는 선명한 상징을 매개로 농촌의 전경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성을 확보하고 있기도 한다. 「서화」는 예전에 대부분 농민들의 큰 오락이었던 '취불놀이'가 점점 승벽이 쇠하여 가는 반면 대체 오락으로서의 '도박'이 성행하고 이에 따른 병폐가 만연해있음을 그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널뛰기', '명절풍습' 등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이 작품 속에 진하게 배어나는 것은 이전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 작품은 결말 부분의 마을회의와 정광조의 성토만 삽입되지 않았다면 아마 카프 작가의 작품이라는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목적성에서 벗어나 있고 그 대신 당대의 수려한 자연 풍광과 풍속 묘사에 대한 표현이 서정적이기 때문이다.

당시 불세비키 창작론을 강조하던 임화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작품에 당시의 주요관점인 지주-소작인의 대립관계가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으며 돌쇠에 대립하는 부정적 전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작품을 「洪水」, 「賦役」보다도 덜 우수한 작품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작가가 최초로 장편을 의식하여 전대의 단편의 단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한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다양한 등장 인물과 농민의 전형인 돌쇠를 창조함으로써 본격적인 장편소설의 길을 열었다는 데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의식기를 지양하고 현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당시의 구조적인 농민의 문제에 대해 거의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했고 당시의 농촌을 폭넓게 형상화하려던 장편소설에의 의도는 산만한 세태묘사라는 비판을 낳게 했다. 이러한 실패를 자인했던지 작가는 바로 몇달 뒤 「故郷」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번째로 살펴볼 작품 「故郷」(조선일보, 1933, 11, 15-34, 9, 21)은 일제 강점기에 생산된 최고의 농민소설이다. 치열한 작가정신과 풍부해진 문학적 안목과 수완으로 일제하 식민지 반봉건 속의 조선 농촌이 겪는 황폐화를 서정적이면서 리얼한 필치로 묘사하고 이에 대응하여 일어난 농민들의 모습



을 박진감 넘치는 문제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평단에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故郷」을 통하여 이기영은 본격적인 장편소설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작품은 그 후 수많은 장편을 물리치고 여전히 그의 소설의 정점으로 남아 있다.

「故郷」에 대한 평가들은 “식민지라는 특수 상황 속에 농민 농민의 생활을 정확히 반영하며 농민들에게 현실 극복의 방법을 암시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農民小說”, “典型的 상황에서의 典型的 인물들의 집단적창조에 성공함으로써 당대 농촌현실의 총체성을 담지해 내는 일반 농민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확립한 작품”, “경향소설의 기념비적 작품, “프로문학계의 대표적인 작가의 대표작” 등 긍정적 평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평가에 못지 않게 1938년에 단행본 초판이 상.하 두권으로 나온 이후 1948년까지 5판이 발행될 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기도 하다.

이기영은 그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제주 소작인이라는 계급모순과 민족외적 모순으로서의 식민지 모순이 소작민의 구체적인 삶을 규정한다는 인식하에 「고향」에서 당대의 농촌을 구조적이며 총체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故郷」의 서두를 이루는 1장 「농촌점경」 1절에서 다음과 같은 상징적 표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논으로 밭으로 헤어졌다. 오후의 태양은 오히려 불비를 퍼붓는 듯이 뜨거운데 이따금 바람이 술술분대야 그것은 火焰을 부채질하는 것뿐이었다.

숨이 확!확! 막힌다. 논꼬에 고인 물이 부글부글 끓어 오른다. 텀벙!튀어드는 개구리는 두 다리를 짝 -뺨고 빠드러진다. 그놈은 비시감치 자빠지면서 입을 딱-딱 - 벌리었다.(.....)⑥

..... 순사는 마름집으로 올라갔다. 작년 가을에 새로

67)이기영, 「고향」, 이기영선집1, 1989, p. 1.

갈려온 마름 안승학은 사랑 마루에 등의자를 놓고 비스듬이 누워서 부채질을 슬슬하며 매암이 소리를 서늘하게 듣고 있었다.

그는 잠이 올까말까 하는대로 부채 든 손을 흔들었다 말었다 하는데, 별안간 군도 소리가 철컹 나는 바람에 깜짝 놀래서 일어났다.

「야! 복상 나오시오? 어서 올라 오시오! 자 어서!」.....<sup>68)</sup>

작가가 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설정해 놓았는지의 여부는 접어두고라도 이와 같은 상징적 묘사가 이 작품 전체의 현실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다. 불별처럼 내리쬐는 여름 더위 아래서 개구리와 다름 바 없는 고달픈 모습의 농민들의 삶, 그러나 이러한 소작인들의 열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주를 대신하는 마름 안승학은 식민지 체계의 하부 일선 기관인 경찰계급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 반봉건 사회 속에서의 그 당시 농민들의 삶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은 이기영의 초기 단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작업이다.

그러므로 「故郷」에 대해서는 작가의 관심분야였던 당시 농촌의 형상을 어떻게 깊이 파헤치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이때 리얼리즘에 근거한 창작기법과 작가의 문학적 형상화 능력도 함께 고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故郷」에는 그 전대의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자본주의 문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농촌의 모습이 처음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제1기 작품에서 폐쇄적인 농촌의 모습이 제시되고 제2기 작품들에서 전위의 주인공을 통해 폐쇄적인 농민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전망을 내포하게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윈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처음으로 철도와 제사공장을 접하게 되고 그곳에 취직하게 되는 일상생활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의 일상생활 속에도

68) 위의 책, p. 15.

자본주의 문명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음을 뜻하며 한편, 닫혀진 세계가 열림으로써 농민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이 시기 농민운동이나 민족해방운동의 주체가 전위 주인공에서 당시 모든 농민 대중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기영의 작품 세계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전체 변혁운동의 성장과도 맥락이 닿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리얼리즘의 성취라는 작가 자신의 필연적 변모과정과도 연관된다.

그러나 다양한 인물군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변혁에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한 모습이다. 자본주의의 이입에 따라 예전보다 더욱 황폐해지는 농촌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이주한 사람들조차도 가난한 모습이어서 원초적인 농민의 문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작가는 더욱 세련되고 완숙해진 필치와 경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형적으로 그리고 있다.

.....아래 장터 영생양조소 목 앞 광장에는 오늘도 남녀노소의 군중이 몇 겹으로 둘러서서 목을 길게 빼들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제각금 빈 그릇을 들고 있다. 누루등등한 얼굴에 초라한 의복으로 간신히 살을 가리고 있는 그들은 흉년을 만난 피난민을 방불케한다. 사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자기가 짜는 비단을 남은 저렇게 잘해 입는데 정작 자기는 입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해마다 쌀농사를 짓는 부모는 쌀은 다 어찌고 재강죽으로 연명하는가?(중략) 이것은 참으로 노동지옥이 아닌가! 농촌에는 이 (공장)와 같은 노동이 없는 대신에 거기 는 기아가 대신하고 있다. 노동과 기아! 그 어느 편이 낫다고 할 것이냐? 아니 그들에게도 농민만 못지 않은 기아가 있고 농민에게도 그들만 못지 않은 노동이 있다. 결국 그 두가지는 그들에게 공통된 운명이 아닐까?.....■

---

69)이기영, 「고향」, 이기영선집1, 풀빛, 1989. pp. 61-62.

이처럼 농민들은 그들의 몰락과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의 원인을 하나의 연관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어렵פות이나마 당대 현실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노농동맹이 결성된 이후의 분위기를 반영한 이 작품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담합하고 연계하여 지주를 타파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당대 사회운동의 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건이 지식인이 아닌 전체 농민을 중심으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대의 문제작이었던 「흙」이나 「常藤樹」가 농민생활의 현장묘사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식인의 활동양상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양상이 다른 것이다. 리얼리즘의 성취라고도 평가되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중에서는 김희준, 안승학, 안갑숙 등에 일단 주목하게 되지만 김희준과의 만남을 통하여 차츰 계급적 각성을 해나가는 김선달, 김원철, 조침지, 박성녀, 김희준과의 만남을 통해 소작쟁의에 참가하는 인동, 인순, 그리고 발랄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생활하면서 공장으로 들어간 방개 등도 장편소설의 등장인물들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故郷」에서는 주인공 김희준의 성격이 소극화됨으로써 해서 그의 주변의 삶이 더욱 다양하게 반영되고 그 역시 영웅적이거나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동경유학생이었던 김희준은 이기영이 정칙영어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동경에서 귀국한 직후의 참담한 생활을 하며 앞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면 갈등을 통해서 얻어진 인물이다. 이처럼 자신이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끌어가는 소설을 김윤식은 '고백체'라 명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의 조명희의 작품인 「땅 속으로」, 「R군에게」등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광수류의 계몽소설에서 드러나는 지식인의 歸郷을,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상류의 지식인이 도회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이루어지는 도피적 故郷 또는 歸巢本能에 따른 귀향이라 한다면 「故郷」에서의 김희준의 귀향은 동경 유학을 떠났던 소작농의 아들이 아무런 세속적인 성공도 이루지 못한 패배적 귀향이라는 점에서 소설의 전개가 예견되기도 한다. 그는 당대 소작농의 아들로서 일본 유학생이라는 점 외에 여타의 농민들과 동일하다. 그는 농민들과 고통스러운 작업을 함께 하면서 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무婚으로 말미암아 아내와의 불화를 겪기도 하며

젊은 총각인 인동이 좋아하는 방개를 좋아하기도 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 농민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자기 계급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내는 '農民의 主體化'라는 새로운 인식의 결과는 문학적 전망의 문제를 현실생활의 구체성 속에서 포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의 작가적 능력의 진전이 자 동시에 현실주의 문학의 한단계 비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작품은 농촌 풍경의 서정적 묘사와 토속적 분위기의 리얼리티, 적절한 속담의 원용, 당 시대 농촌 현실의 제시와 작가의 날카로운 현실 의식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작품의 미학적 의미망을 고조시켰다 하겠다. 특히 두레라는 전통적 미풍을 통하여 갈라섰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공동체의식을 느끼며 집단화하는 등 농민들의 주체화가 이루어진 것은 뛰어난 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故郷」이라는 텍스트는 초기 農民小說인 「民村」으로 부터 시작하여 「賦役」과 「洪水」, 증편인 「風火」를 거치면서 완성된 텍스트인데 작가는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확장, 구체화하고 조정함으로써 좀더 폭넓고 전형적인 주인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즉 「故郷」의 김희준은 「民村」의 창순, 「洪水」의 박건성, 「風火」의 돌쇠를 거치는 10년간의 이기영의 작품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자생적 지도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전형적 인물에 의한 전형적 상황'의 표현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등장인물의 관계를 살펴볼 때 地主·小作人의 대립관계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장면에서 다룰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계층관계를 형상화하지 못한 부정적 측면 등이 그것이다. 즉 긍정적 인물군과 부정적 인물군을 충실히 그려냈으면서도 당시 결코 적지 않은 부류였던 中農이나 自作農 등 농촌 中間層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목적의식기의 도식적인 구조가 「故郷」의 구성 방식에 도입되어 스스로 작품의 전망을 제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거론한 바 있는 그의 계승적인 구조를 표를 통하여 밝혀보기로 한다.

「표4」 「故郷」의 飯事 構造

|               |                              |
|---------------|------------------------------|
| 1. 긍정적 인물의 등장 | 김희준-(일본에서 귀향한 지식인)           |
| 2. 지주-소작인의 대립 | 마름 안승학과 피폐화된 소작 농민(대립)       |
| 3. 매개 상황의 부여  | 김희준에 의한 청년회조직, 농민조합결성, 야학 실시 |
| 4. 계기 부여      | 기근으로 인한 소작료 삭감 요구-지주의 반발과 횡포 |
| 5. 소작쟁의       | 노농동맹, 농민조합, 청년회를 통한 단결과 쟁의   |

이상의 표를 통해서 본 내용은 카프의 제1차 방향전환 이후에 이기영이 그 이전의 단편과 연계하면서 선택한 소설의 구조이다. 언어라는 상부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질인 하부구조를 변용, 발생과 굴절을 거쳐 텍스트의 이동이라는 농민소설의 초역사적 주고받기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기영의 농민 소설들이 그의 개인서술체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텍스트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즉, 이것은 작품을 태어나게 한 사회 구조의 반영이라는 골드만적 의미에서, 크리스테바의 텍스트 간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작품의 구조적 욕망 변용을 추출하는 것에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형적 상황에서의 전형적 인물들의 집단적 창조에 성공함으로써 당대 농촌현실의 총체성을 구현한 「故郷」은 그러므로 「民村」으로부터 근 10년간 지속되어온 작가의 농민 소설의 텍스트들이 지속적인 변용을 거쳐서 나타난 현상 텍스트인 것이다. 이것을 김윤식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작가가 자신이 비교적 잘 아는 농촌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카프 맹원으로서 카프의 지도부의 위치에서 그 당시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전망의 양상으로 볼 때도 이기영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승리라는 도식적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결말부에서 소작쟁의의 결과 필연적으로 소작농민이 승리하도록 한 것은 그 예가 된다. 이것은 작가의 성급함 아니면 작위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이것은 작가의 성급함 아니면 작위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소작료 싸움이라는 전체변혁운동의 과제를 단순히 한 개인의 윤리적인 약점을 문제삼아 해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갑속이 윤리적인 가정문제의 당사자인 그의 아버지 안승학과 대립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점, 정당한 방식에 의해 안승학의 패배를 받아내지 못하고 위협과 협박을 일삼아 중국에는 돈으로 소작쟁의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 작품을 결정적으로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거세지는 탄압과 두차례에 걸친 검거는 많은 작가들을 위축되게 만들었고 필연적으로 이러한 점들은 창작 활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위에서 제시했던 이기영 소설의 서사구조는 그의 농민소설이 새롭게 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故郷」이후의 소설세계가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상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 중 3기에 해당하는 장편소설을 고찰해 보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은 「鼠火」는 장편을 지향했던 작품인데 목적의식성을 극복하고 예술성을 우위로하여 농민의 전형인 「돌쇠」를 창조하였으며 전대에서 두드러졌던 전위 지식인의 역할이 줄어들어 대신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사라져가는 전통풍습과 대체된 오락인 '도박'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폭넓은 생활을 유려한 필치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비록 구체성을 띠지는 못했지만 「故郷」의 선편이 되었다는 점에서 — 齣를 확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故郷」은 식민지하의 농촌을 총체적으로 그려내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작가에게 있어서는 이전의 문학 행위에 대한 총결산 또는 그의 성장 체험의 총체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아래의 「표5」를 통하여 요약해보기로 한다.

「표5, 이기영 초기 농민소설의 변모 양상

| 각 단계별 작품명               |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변모 양상         | 작가의 현실 인식의 변모 양상        | 작품의 구조적 특성과 변모 양상    |            |                     |
|-------------------------|---------------------------|-------------------------|----------------------|------------|---------------------|
|                         |                           |                         | 주체 의식                | 작중인물       | 구성과 기법              |
| 제1기:<br>「민촌」<br>「농부정도롱」 | 식민지적 경제 구조와 지주-소작인의 대립    | 농촌 현실의 구조적 모순 파악        | 현실의 폭로와 농민의 현실 인식    | 매개 인물의 등장  |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         |
| 제2기:<br>「홍수」<br>「부역」    |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성과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 무산자와 유산자의 대립과 갈등        | 농민의 주체적 자각과 계급 투쟁    | 완결된 前衛의 도입 |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 (서술 중심) |
| 제3기:<br>「서화」<br>「고향」    | 일제의 탄압에 의한 변혁 운동의 침체와 내면화 | 현실의 총체적 인식 (작가 의식의 내면화) | 노농동맹과 농민의 적극적 집단적 대응 | 전형적 인물의 창조 | 사회주의 리얼리즘 (묘사 중심)   |

#### 4.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文學史 的 意義

앞에서 본고는 1920-30년대의 이기영 초기 농민소설의 전개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기영은 일제의 수탈에 의한 1920-30년대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잘 알았던 농촌 체험의 작가였다. 그러므로 당대의 현실을 리얼리즘 기법에 의해 형상화했던 그의 농민소설에는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농촌의 피폐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온 고찰을 토대로 文學史的 意義를 정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은 프로 문학 이론을 가장 성공적으로 작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농촌의 궁핍화는 민족의 현실을 타개하려고 애썼던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큰 관심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진



보적 지식인 집단이었던 '카프'내에서의 이러한 관심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시되는 이론은 상당히 과학적 수준에 올라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문학적 형상성을 갖춘 작가가 없다는 카프지도부의 고민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이기영을 통해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다. 이기영은 다른 카프 작가들이 범했던 관념적 과격성을 비교적 드러내지 않으면서 식민지 농촌을 해방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각 계급 또는 농민집단이 어떻게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가를 전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창작기법인 리얼리즘은 당대의 최고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프로문학에서 내세워진 리얼리즘은 그것이 비록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모방하고 수용하는 차원에 머물렀지만 세계관과 창작기법의 문제를 함께 규정하는 이론적 지침이 되었다. 이것이 대개의 작가들의 경우, 문학과 정치를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하게 만든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기영에게 있어서 리얼리즘은 작가정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故郷」의 김희준이 농민들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당시의 조혼의 피해자로서 아내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애정관계로 번민하거나 동네 연장자의 조언에 따라 새롭게 각성하여 청년회를 재정비 하는 등 지식인의 모습을 상당히 섬세하고 리얼한 필치로 그려나갔다는 점에서 그는 독특한 기법과 예술성뿐만 아니라 창작 정신에서도 리얼리즘에 입각한 작가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여타 작가들에 비해서도 뛰어난 것이었다.

셋째,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들은 前代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의 농민소설들이다.

이것은 제3장을 통해 구명된 사실이거니와 필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소설사에서 이기영 이전에 농민소설을 쓴 작가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 이기영의 작가적 출발이 농민소설에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작가가 창작에 대해 가지는 준엄한 태도는 식민지하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기법에 의해 형상화하는 창조적 능력까지 겸비한 보기 드문 작가였다.

넷째, 이기영의 농민소설들은 일제하 프로문학의 가장 뛰어난 성과이자, 당대 민족문학의 한 정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위치가 1920-30년대 한국문학사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는 뚜렷한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 5. 결 론

지금까지 이기영의 초기 작품을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식민지 체제의 강화와 카프문학운동의 변모과정, 그리고 작가의식의 변화에 따라 그의 초기 농민소설의 전개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문학운동에 대한 이해와 민족문학으로서의 이기영 초기 농민소설의 관계를 구명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특성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그것들에 상응하는 소설이론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한편 작가의 내면세계의 변모 양상도 추적해 보았다. 그 내용을 결론삼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기영이 농민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①. 카프 가맹 ②. 당대 농촌의 궁핍화와 구조적 모순 ③. 이기영의 성장과정의 체험 등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당시 시대상황과도 밀접한 이 세 가지 배경은 유년기의 가난과 농촌 생활 체험, 일본 유학시절의 체험, 젊은 날의 방황과 직업을 전전하며 얻은 무산자 체험 등을 낳았는데 그는 이것을 작품의 소재로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카프에의 가맹은 식민지하 농촌의 실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갖게 된 동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로써 이기영은 농촌의 구조적 핵심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한 민족주의 작가로 드러난다. 당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으로써 농민소설을 썼던 점과 이것을 문학예술로 형상화하려했던 리얼리즘 정신은 다른 카프작가와와는 다른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던 요인이 되었다.

둘째,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은 문학 내적 발전이라는 독자적 체계와 카프 문학운동의 과정에 의해 발전하고 변모한다. 이기영 농민소설을 이끌

어은 이 두 사항은 1925년 8월 카프가 성립되고 1935년 5월 해체될 때까지 그의 소설의 정신사적 축이 된다.

제1기 농민소설은 그의 작가적 출발이 농민소설에 있음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문학이론의 영향없이 일제 침략에 의해 사회구조가 식민지적 성격으로 재편된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民村」과 「農夫鄕道龍」은 신경향파의 특징인 절망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나 농촌 공동체를 부르짖는 주인공을 내세우는 등 사상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반봉건적인 생산관계로 드러나는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을 처음으로 폭로하였고 문제적 인물을 설정하여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려 했으며 농업 문제해결을 위한 모색으로서 문학예술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는데서 농민소설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작품들로 평가된다.

제2기 농민소설은 전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아나키즘을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카프 문학운동의 '목적의식기'에 해당하는 이때 카프에서도 문학예술에 당의 지침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 카프 작가의 서사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洪水」, 「賦役」의 서사구조는 <공정적 인물의 등장-지주-소작인 대립-매개 상황의 부여-계기 부여-소작쟁의-지주 타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이기영 소설의 기본 골격이 되고 그의 농민소설의 비약적인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구조를 통하여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기영의 제2기 농민소설은 현실에 대한 집단적 대응방식과 세계관의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위적 매개인물을 농촌에 투입하여 노동동맹을 통한 농촌의 변혁을 일으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지나쳐 독자적인 작품세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형상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제3기 농민소설은 전형적 상황 하에서 전형적 인물의 창조를 통해 리얼리즘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사회주의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은 「鳳火」는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카프 지도부의 혹평을 받았지만 전위적 매개인물의 역할이 감소되는 대신에 농민의 전형울 창조하여 농촌변혁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한 마을의 농민들 다수를 폭넓게 형상화하여 장편소설이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모습이다.

「故郷」은 이 시기 이기영의 농민소설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내적체계는 등장인물과 구조라 평가할 수 있는데 초기 단편에서 불분명한 사상의 혼란과 전망을 드러냈던 주인공과 지주·소작인의 도식적 설정은 중편과 장편을 지향하면서 점차 극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초기에 두드러졌던 전위적 매개인들의 역할이 감소되는 대신에 전체 농민대중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폐쇄되고 보수적이던 이들에게 열린 세계를 제시하고 그들을 농민문제의 해결의 주체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故郷」 역시 당대의 완전한 전형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구조의 한계로 분석되는데 당대 민족문학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당대 민족운동의 한계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의식기의 단편소설에서부터 선택한 이기영 소설의 구조는 이기영의 농민소설들이 카프의 이론을 실체화하는 데는 중요한 몫을 했지만 예술성을 평가하는 문학내적 체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가 극복해야 했던 대상이자 한계였던 것이다.

민촌 이기영은 1920-30년대 농촌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지식인 작가로서 식민지 한국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여러 집단의 노력과 그 현실을 그리려고 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당시의 운동에 대한 선진적 입장에서 민중적,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리얼리즘의 길로 끌어다갔는데 우리 문학사의 1930년대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 바탕을 두어 새롭게 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参 考 文 献

### 1. 기본 자료

- 조선지광. (1925, 12, 13, ).  
개벽 65, 66. (1926, 1-2).  
농민소설집. 별나라사, 1933.  
카프대표소설선 1, 2, 사계절 출판사, 1988.  
한국근현대민족문학총서3, 이기영선집, 1989.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 장.  
조 광

### 2. 논문. 기타

- 백 철. 「농민문학 문제」, 조선일보, 1931, 10, 11.  
임 화. 「이기영 씨 작 '鼠火」, 조선일보, 1933, 7, 19.  
박승국. 「농민소설집-농민문학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1933, 12, 10-14.  
한설야. 「포석과 민촌과 나」, 중앙28, 1936, 2.  
박영희. 「민촌의 역작 <故郷>을 읽고서」, 조선일보, 1936, 12, 1.  
민병휘. 「민촌 <故郷>론」, 백광3-6, 1937, 3, 6.  
김남천. 「이기영 검토-사상, 작품, 문장」, 풍림6, 1937  
박승국. 「이기영 검토-그의 인간 사상과 작품 문장에 대하여」, 풍림6, 1937, 5.  
박영희. 「민촌 이기영론」, 동아일보, 1938, 2, 19-20.  
현 민 . 「이기영 씨의 인상」, 조선문학 제15호, 1939, 1.  
안함광. 「'로만' 제의의 제문제와 <故郷>의 현대적 의의-장편소설 검토」인문  
평론13, 1940, 11.  
이주형. 「1920년대 한국프로문학의 한계」, 논문집20, 경북대, 1975.  
김진석. 「1930년대 한국농민 소설 연구-작중인물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고려

- 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신춘호. 「한국 농민소설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0.
- 김병광. 「초기 농민소설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90, 국어국문학회, 1983.
- 김 철. 「1920년대 신경향파 소설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84, 2.
-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4, 2.
- 한승욱. 「지식인의 귀농의식 재고」, 어문논집24, 25, 고려대 국문과, 1985.
- 조남철. 「일제하 농민소설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 임영환. 「1930년대 한국 농촌 사회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 한형구. 「1930년대 리얼리즘 소설의 성격」, 한국학보48, 일지사, 1987, 가을.
- 최유찬. 「1930년대 한국리얼리즘론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한형구. 「〈故郷〉론」, 문학사상, 1988, 9.
- 정미원. 「이기영〈故郷〉의 작중인물 연구」, 한국의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김승환. 「해방공간의 농민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권일경. 「이기영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김윤식. 「이기영론」, 동서문학, 동서문학사, 1989, 8-10월호.
- 류양선. 「1930년 전후의 한국농민문학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8.
- 김종욱. 「1920-30년대 한국 농민소설의 발전과정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성수. 「이기영 초기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전형성」, 반교어문2집, 1990.
- 임규찬. 「〈鼠火〉의 작품적 성격과 의의」, 반교어문2집, 1990.
- 하정일. 「〈故郷〉과 농민소설의 방향」, 연세어문학,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90.

### 3. 단행본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한얼문고, 1973.
- 박현채. 「일제 식민지 통치하의 한국농업」, 관악서당, 1979.
-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80.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1.

전광용 외. 『현대소설연구』, 국문학연구총서10, 정음사, 1982.

신경림. 『농민소설론』, 은누리사, 1983.

김치수. 『문학 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83.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 사상사』, 한길사, 1984.

김문식 외. 『일제하의 한국 연구 총서2』, 민중서관, 1984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울유문화사, 1986.

----- 정호웅. 『한국 리얼리즘 소설 연구』, 탑 출판사, 1987.

----- 『한국근대리얼리즘비평 선집』, 서울대출판부, 1988.

강만길 외. 『한국현대사회운동사전』, 열음사, 1988.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89.

한기형, 임규찬. 『카프비평자료총서』, 1, 2, 3, 4, 5, 6, 7, 권, 태학사, 1989.

김윤식. 정호웅. 『한국 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9.

구인환외.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삼지원, 1989.

권영민. 『월북문인연구』, 문학사상사, 1989.

한승욱. 『한국현대장편소설 연구』, 민음사, 1989.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 연구』, 일지사, 1990.

김 준. 『한국 농민소설 연구』, 태학사, 1990.

오양호.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90.

신덕룡. 『진보적 리얼리즘 소설 연구』, 시인사, 1990

#### 4. 국외논저

淺田喬二 외. 『항일농민운동연구』, 동녘, 1984.

츠베탕 토도로프 . 최현무 역.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1987.

v. i. lenin. 정광희 역.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도서출판 아침, 1988.

M. 마렌 그리제바하. 장영태 역. 『문학 연구의 방법론』, 기린원, 1989.

L.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90.

게오르그 루카치. 김혜원 번역. 『루카치 문학이론』, 도서출판 세계, 1990.

蔣孔陽. 김일평 옮김. 『形象과 典刑』, 사계절, 1987.

Abstract

The Study of Lee Ki-Young's early  
peasant novels

Kim Young-He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yung-Taek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peasant literature under Japan's occupation is historically significant from nineteen twenties till thirties. In this thesis, I considered Lee Ki-Young's early peasant novels in view of social backgrounding and respect, which have brought about the important issues of realism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pro-literature. After that, I took aim the literature-historical significance.

The contents summarized are followed.

1) The backgrounds of Lee Ki-Young writing peasant novels have close rela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hose days. Their factors are his entrance KAPF and peasant novels as pro-literature the destitution and the structural discrepancy of farm life experiences of his own.

The elements that effected Lee Ki-Young's peasant novels were fetters including the individual and social life's conditions. The writer must be experienced them. They are all important to form his view of world.

2) Lee Ki-Young's early peasant novels are developed and transfigured not only by a unique system equal to the internal development of literature but also with course of KAPF literature movement.

Dividing into three phases, in this paper, I considered the social structure at that time, the writer's senses at each phase, the peculiarities of work structure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it deductively.

(1) The peasant novels in the first phase suggest that Lee Ki-Young's literature begins the peasant novel itself. From the point of this phase's backgrounds, the social structure is rearranged into colonial characteristics by Japan's intrusion without effects of literature theory. His works of this phase are [Min-Chon (A commoners' village)] and [Nong Bu Joung Do-Ryung (A Farmer Jung Do -Ryung)]. His thoughts seen in his works are the Anti-Conventional School's peculiarity that characters conveyed the desperate force or that sang agricultural community.

He, however, disclosed the structural discrepancy of farm life, especially the dispute of the tenant farmer. Besides, he established characters with problem, trying to contact urban and rural life, finally emphasizing the social role of literature to solve the problems of a farm society.

(2) The second phase novels showed a determined attitude of recovering the limit of the previous novels, a mass response against the realities of life and more distinctive view of world.

This phase is assigned to "Anti-Conscious Epoch" of KAPF literature movement. Even in literature movement KAPF required the routine guide that the political party maintained advanced characters were supplied to farm-life and performed the reform of agriculture-life through labour alliance.

The literatural structure of the masterpieces written by Lee Ki-Young, [Hong-su(Flood)], [Pu-yok(Slave Labor)] is developed to <Appearance of positive characters - the dispute of landowner and tenant farmer - the presentation of medium circumstance - a tenant dispute>.

(3) The peasant novels of the third phase were written under the influence of social-realism which was based on a typical circumstance. On the other hand, they showed an achieved look of realism by creating the typical characters. Of his works, [Sea-wha (Painting and Calligraphic works)] and [Ko-Hyang (Hometown)] are very outstanding. Considering this phase, an advanced character that had been existed in the previous phase is eluded, shows the whole peasant mass, gives open worlds to those who are closed and shut and encourages a group strife that only they are main body in solving peasants problems. Like this, they are shaped the changing of consciousness with realism method.

---

But, as Japan's oppression was more severe, we couldn't see the intensity that we could see in *Am-Consciousness*, and we instead could see inside world of writer's consciousness and more refining.

Lee Ki-Young configured the efforts and realities of life many groups who wanted to release Korea and thus tried to solve movements in those days popularly and independently in respect to an advanced position.

3) As a result of above consideration,

(1) He applied pro-literature theory to his works successfully.

(2) Realism methods were strongly revealed in his works.

(3) His works were the new-style novels which couldn't be seen in other writers' works or in the previous days.

After all, Lee Ki-Young's early peasant novels are the most remarkable of pro-literature during Japan's regime. So, they are estimated a peak of a national literature in those days.

4) We must remeasure the part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1930s.



## 1. 李箕永 年譜

| 연도(나이)      | 문학적 전기                                                                                                                                                             |
|-------------|--------------------------------------------------------------------------------------------------------------------------------------------------------------------|
| 1895년 (1세)  | 5월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회룡리에서 태어남.<br>(출생년도에 대해 호적에는 1893년, 족보에는 1896년, 북한측 자료는 1895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
| 1898년 (3세)  | 천안으로 이사하여 친척의 소작을 하는 가난한 생활을 함. 천원군 상·중·하엄리가 성장기의 생활공간이 됨.                                                                                                         |
| 1906년 (11세) | 장티푸스로 어머니가 사망함. 개화사상가로서 서울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이를 계기로 귀향했으며 어머니의 사망은 이기영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문학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됨.                                                                   |
| 1907년 (12세) | 아버지의 발기로 창설된 天安私立寧進學校에 입학, 신소설「치악산」을 읽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 주인공들처럼 해외유학을 하고 돌아와 애국자가 될 것을 몽상함.                                                                           |
| 1909년 (14세) | 결혼                                                                                                                                                                 |
| 1911년 (16세) | 4월 天安私立寧進學校를 졸업함. 이후 5년 동안 부산, 대구, 공주 등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농촌, 광산과 수리조합, 제방공사장에서 남품을 팔고 광석을 캐기도 하면서 무산자 체험을 함.                                                            |
| 1917년 (22세) | 논산 榮華女高 屬員으로 근무                                                                                                                                                    |
| 1918년 (23세) | 이후 3년간 湖西銀行 天安支店 書記保로 근무                                                                                                                                           |
| 1922년 (27세) | 4월 초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고향의 길을 떠나 東京 正則 英語學校를 다님. 그가 대서소 필생으로 학비를 버는 동안 친구는 노동판을 쫓아 다니다가 직업적 사회운동가로 나섬. 이 친구로부터 처음 사회주의 서적을 접하게 됨. 또한 러시아 및 소비에트 문학을 접하고 특히 고리끼의 작품을 애독함. |
| 1923년 (28세) | 關東大地震으로 인해 貴國                                                                                                                                                      |
| 1924년 (29세) | <開闢>의 현상문예에 <옴바의 비밀편지>가 3등으로 당선됨.                                                                                                                                  |

|             |                                                                                                                                                                                                                                                                                                                                         |
|-------------|-----------------------------------------------------------------------------------------------------------------------------------------------------------------------------------------------------------------------------------------------------------------------------------------------------------------------------------------|
| 1925년 (30세) | 여름, 아주 서울로 올라와 抱石 趙明熙의 알선으로 朝鮮紙光社에 취직하는 한편 카프에 가맹함. 이때 무산자에 속했던 계급적 의식이 카프에 가맹하는데 조금도 사상적 주저를 없게 했다고 한다. 이는 창작 생활과 세계관의 발전에 주요한 전환점이 됨.                                                                                                                                                                                                 |
| 1927년 (32세) | 카프가 재조직되면서 출판부장을 맡음.                                                                                                                                                                                                                                                                                                                    |
| 1931년 (36세) | 여름, 일제의 카프에 대한 제1차 검거로 구속되었다가 이듬해 初旬 執行猶豫로 釋放됨.                                                                                                                                                                                                                                                                                         |
| 1933년 (38세) | 그 전해 겨울, 평론 「'적막한 예원'의 일절을 읽고-동인군을 박함」을 쓰고 이어서 이해 봄에 「'혁명가의 안해'와 이광수」를 씀. 작품 창작에만 주력해 오던 이기영이 문학 문학에 술에서의 사상성과 계급성을 부정하려는 작가 김동인과 이광수에 대해서는 맹렬한 이론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이광수의 「혁명가의 안해」를 반박하기 위한 소설 「변절자의 안해」도 5월에 연재를 시작하였으나 제1회만 발표되고 나머지는 검열에 걸려 원고까지 압수당함. 카프 제1차 검거 때 옥중에서 구상한 어린시절 고향 이야기인 「서화」를 연재함. 조선 농민생활에 대한 대서사시적 작품 「고향」을 연재하기 시작함. |
| 1934년 (39세) | 당대 평단에서 논의되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창작방법론과 관련하여 자신의 작가로서의 창작체험에 기초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평론 「창작방법문제에 관하여-문예적 시사감」을 발표함. 여름에 카프 맹원에 대한 제2차 검거로 구속되어 전주형무소에서 1년여간 감옥생활을 함.                                                                                                                                                                                   |
| 1936년 (41세) | 소시민 지식인의 과대망상증을 풍자적으로 폭로하고 그 형상을 통해 당대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하는 장편 풍자 소설 「인간수업」을 발표함.                                                                                                                                                                                                                                                           |
| 1938년 (43세) | 식민지적 자본주의화에 편승하여 성장한 친일지주, 자본가를 비판적 사실주의의 수법으로 형상한 장편소설 「新開地」를 발표.                                                                                                                                                                                                                                                                      |
| 1940년 (45세) | 東學農民戰爭으로부터 韓日合邦에 이르는 시기의 한 양반가정을 중심으로 봉건제도의 멸망과 자본주의적 발전의 대두를 보여주는 자전적 長篇小說 「봄」을 발표.                                                                                                                                                                                                                                                    |
|             | 3월 강원도 내금강 병이무지리(竝武里)로 전가족이 소개하                                                                                                                                                                                                                                                                                                         |

|             |                                                                                                                                                                                                           |
|-------------|-----------------------------------------------------------------------------------------------------------------------------------------------------------------------------------------------------------|
| 1944년 (49세) | 여 직접 농사를 짓다가 해방을 맞음. 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로부터 創氏改名을 강요당했으나 창씨하지 않고 버티었으며, 사상보호관찰사에서 일어로 집필하거나 강연을 요구했을 때, 자신은 소학교를 졸업했을 뿐이기 때문에 일어를 모른다며 거절함.                                                                    |
| 1945년 (50세) | 9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위원장이 됨.                                                                                                                                                                                   |
| 1946년 (51세) | 월북 후 4월, 해방 이후 최초의 작품인 희곡 「해방」을 발표. 8.15해방 1주년 기념사업으로 철원극장에서 상연되었다고 함. 7월, 북조선문예총의 기관지인 「문화전설」 창간호에 북한의 토지개혁을 다룬 단편 「개벽」을 발표.<br>이후 68년까지 조소친선협회 위원장, 북조선 인민위원, 최고 인민회의 대위원, 작가동맹 중앙위원, 평화통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냄. |
| 1948년 (53세) | 「땅」의 제2부 「수확」편을 발표. 장편소설 「땅」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의해 벌어진 조선농촌의 복잡하고도 거대한 변화와 발전을 대서사시적인 넓이와 깊이로 재현한 작품이다.                                                                                                           |
| 1954년 (59세) | 장편소설 「頭滿江」 제1부 발표. 「頭滿江」 제1부는 19세기말 20세기초부터 일제의 조선강점에 이르는 시기의 충청도의 한 두메산골을 배경으로 하여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형상화한 것임.                                                                                                 |
| 1957년 (62세) | 「두만강」 제2부 발표. 「두만강」 제2부는 1910년 이후부터 1919년 3.1운동 전후를 배경으로 충청도, 함경북도, 그리고 만주 동북지방을 무대로 하여 국내외의 반일의병운동과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역동상, 양반계급의 몰락과 성장하는 친일군상을 형상화함.                                                           |
| 1960년 (65세) | 장편소설 「두만강」으로 인민상 수상                                                                                                                                                                                       |
| 1961년 (66세) | 「두만강」 제3부 발표. 「두만강」 제3부는 1920년대초 노동계급 영도의 民族解放運動으로부터 1930년대초 항일무장투쟁에 이르는 시기 국내외의 광범위한 반일운동을 형상화함.                                                                                                         |
| 1967년 (72세) | 장편소설 「祖國」 발표.                                                                                                                                                                                             |
| 1968년 (73세) | 文學藝術總同盟 委員長이 됨.                                                                                                                                                                                           |
| 1972년 (77세) | 長篇小說 「역사의 새벽길(상)」 발표.                                                                                                                                                                                     |

---

|             |                                |
|-------------|--------------------------------|
| 1984년 (89세) | 8월 9일, 병으로 사망. 遺稿集 「태양을 따라」 發刊 |
|-------------|--------------------------------|



## 2. 李箕永 小說 目錄

| 작 품 명       | 발 표 지    | 발 표 일             | 비 고                                                          |
|-------------|----------|-------------------|--------------------------------------------------------------|
| 읍바의 비밀편지    | 개벽49     | 1924. 7.          | 사해공론 37,2 재수록                                                |
| 가난한 사람들     | 개벽59     | 1925. 5.          |                                                              |
| 쥐 이야기       | 문예운동1    | 1926. 1.          |                                                              |
| 장동지 아들      | 시대일보     | 1926. 1. 4.       |                                                              |
| 민 촌         | 조선지광     | 1925. 12. 13.     |                                                              |
| 농부 정도롱      | 개벽65, 66 | 1926. 1-2.        | 민촌(문예운동사, 27)<br>이기영 단편집 재수록                                 |
| 악인과 선인      | 조선지광     | 1926. 1.          |                                                              |
| 파러먹은 딸      | 문예운동     | 1926. 8.          | 이기영 단편집 재수록<br>(삼천리 35, 3)                                   |
| 오남매 둔 아버지   | 개벽68     | 1926. 4.          |                                                              |
| 외교원과 전도부인   | 조선지광     | 1926. 5. 19       |                                                              |
| 부 흥 회       | 개벽72     | 1926. 8.          |                                                              |
| 박 선 생       | 별건곤1     | 1926. 11.         |                                                              |
| 천치의 논리      | 조선지광61   | 1926. 11.         | 1회 미완<br>「농부의 집」속편                                           |
| 失 眞         | 동광9      | 1927. 1.          |                                                              |
| 농부의 집       | 조선지광63   | 1927. 1.          |                                                              |
| 어머니의 마음     | 현대평론1    | 1927. 1.          |                                                              |
| 誘 惑         | 조선일보     | 1927. 1. 4.       |                                                              |
| 餓 死         | 조선지광64   | 1927. 2.          |                                                              |
| 號 外         | 현대평론2    | 1927. 3.          |                                                              |
| 비밀회의        | 中外日報     | 1927. 4.          |                                                              |
| 밋머느리-금순의 小傳 | 조선지광68   | 1927. 6.          |                                                              |
| 邂逅          | 조선지광73   | 1927. 11.         |                                                              |
| 채색무지개       | 조선지광75   | 1928. 1.          | '일인일두소설' 중의<br>하나로서 일종의 공트<br>원보(리기영 단편집)<br>(동경: 조선청년사1981) |
| 고난을 뚫고      | 동아일보     | 1928. 1. 5-24.    |                                                              |
| 속제          | 조선지광77   | 1928. 3. 4합병호     |                                                              |
| 원보(일명 서울)   | 조선지광 78  | 1928. 5.          |                                                              |
| 자기희생        | 조선일보     | 1929. 3. 12.      |                                                              |
| 향락귀         | 조선일보     | 1930. 1. 2-18.    | 카프작가 칠인집(집단<br>사 1933)<제지공장촌><br>으로 게재수록                     |
| 조희뜨는 사람들    | 대조2      | 1930. 4.          |                                                              |
| 홍수          | 조선일보     | 1930. 8. 21-9. 3. | 농민소설집(별나라사,<br>33)(12회)                                      |
| 광명을 찾기까지    | 해방창간호    | 1930. 12.         |                                                              |

|              |           |                            |                                                          |
|--------------|-----------|----------------------------|----------------------------------------------------------|
| 앞잡이          | 해방        | 1931, 2.                   |                                                          |
| 시대의 진보       | 조선지광94    | 1931, 1. 2합병호              |                                                          |
| 현대풍경         | 중앙일보      | 1931, 6. 27-               | 151회                                                     |
| 이중 국적자       | 해방        | 1931, 6.                   |                                                          |
| 부역           | 시대공론1     | 1931, 9.                   | 농민소설집                                                    |
| 貓養子          | 조선일보      | 1932, 1. 1-31.             |                                                          |
| 양잠촌          | 문학건설1     | 1932, 12.                  |                                                          |
| 박승호          | 신계단1권 4호  | 1933, 1.                   |                                                          |
| 김군과 나와 그의 안해 | 조선일보      | 1933, 1. 2-15.             |                                                          |
| 별천자의 안해      | 신계단1권 8호  | 1933, 5-6.                 | 2회 검열 삭제 미완                                              |
| 서화           | 조선일보      | 1933, 5. 30-7. 1           | 30회 연재                                                   |
| 고향           | 조선일보      | 1933, 11. 5-34, 9<br>. 21. | 고향(한성도서, 36: 아문<br>48: 조선작가동맹출판사<br>, 55)                |
| 가을           | 중앙3       | 1934, 1.                   |                                                          |
| 돌쇠           | 형상1-      | 1934, 2-                   | 「서화」의 본편, 장편<br>「만세전후」의 제1서편<br>이 「서화」이고 제2서편<br>이 「돌쇠」임 |
| 진통기          | 문학창조1-    | 1934, 6-                   |                                                          |
| 노예           | 동아일보      | 1934, 7. 24-29.            |                                                          |
| B씨의 치부술      | 중앙11      | 1934, 9.                   |                                                          |
| '남생이'와 '병아리' | 청년조선1-    | 1934, 10-                  |                                                          |
| 쥐 이야기        | 삼천리60     | 1953, 3.                   | 재수록                                                      |
| 元致西          | 동아일보      | 1935, 3. 3-17.             |                                                          |
| 흘과 인생        | 예술3-      | 1936, 1-                   |                                                          |
| 인간수업         | 조선중앙일보    | 1936, 1. 1-7. 23.          |                                                          |
| 선형           | 중앙28      | 1936, 2.                   |                                                          |
| 도박           | 조광5       | 1936, 3.                   | 서화 수록                                                    |
| 배낭           | 조광7       | 1936, 5.                   | 학교 소설                                                    |
| 십년후          | 삼천리74     | 1936, 6.                   |                                                          |
| 유한부인         | 사해공론15    | 1936, 7.                   | 이기영 단편집                                                  |
| 적막           | 조광 9      | 1936, 7.                   | 이기영 단편집                                                  |
| 성화           | 고려시보      | 1936.                      | 삼천리 1937                                                 |
| 夜光珠          | 중앙35      | 1936, 9.                   | 1회 연재후 중단<br>「중앙」중간                                      |
| 비            | 백광1       | 1937, 1.                   | 이기영 단편집                                                  |
| 나무꾼          | 삼천리81     | 1937, 1.                   |                                                          |
| 협秋           | 조광15, 16. | 1937, 1-2.                 |                                                          |
| 추도회          | 조선문학 속간7  | 1937, 1.                   |                                                          |
| 읍바의 비밀 편지    | 사회공론22    | 1937, 2.                   | 재수록                                                      |
| 어머니          | 조선일보      | 1937, 3. 30-10.            |                                                          |



|         |           |                   |                            |
|---------|-----------|-------------------|----------------------------|
| 인정      | 백광5       | 11.               |                            |
| 산모      | 조광20      | 1937, 5.          |                            |
| 든       | 조광24      | 1937, 6.          |                            |
| 노루      | 삼천리문학1    | 1937, 10.         |                            |
| 신개지     | 동아일보      | 1938, 1.          |                            |
| 참패자     | 광업조선      | 1938, 1. 19-9. 8. |                            |
| 설       | 조광31      | 1938, 2.          |                            |
| 금일      | 사해공론39    | 1938, 5.          |                            |
| 환상기     | 조선일보      | 1938, 7.          |                            |
| 청년      | 조선일보      | 1938, 7. 3-9.     |                            |
| 육마      | 삼천리99-    | 1938, 8-          |                            |
| 대장칸     | 야담34      | 1938, 10.         |                            |
| 진통기     | 조광36      | 1938, 10.         |                            |
| 묘목      | 조선문학15-20 | 1939, 1-7.        | 미완                         |
| 燧石      | 여성36      | 1939, 3.          |                            |
| 少婦      | 조광41      | 1939, 3.          |                            |
| 권서방     | 문장3       | 1939, 4.          |                            |
| 고물철학    | 가정지우      | 1939, 5.          |                            |
| 야생화     | 문장6       | 1939, 7.          |                            |
|         | 문장7       | 1939, 7.          | 일명 「나의 고백」임시<br>중간 창작 32인집 |
| 형제      | 청색지6, 7   | 1939, 9-10.       |                            |
| 대지의 아들  | 조선일보      | 1939, 10. 12-     | 만주개척민 소설                   |
|         |           | 40, 6. 1.         |                            |
| 귀농      | 조광50      | 1939, 12.         |                            |
| 봉황산     | 인문평론6     | 1940, 3.          |                            |
| 왜가리     | 문장16      | 1940, 4.          |                            |
| 봄       | 동아일보      | 1940, 6. 11-8. 10 | 미완(동아일보폐간)                 |
| 봄       | 인문평론12-15 | 1940, 10-41, 2.   | 위의 것에서 이어짐                 |
| 간격      | 광업조선      | 1940, 9, 11, 12.  |                            |
| 아우      | 조광62      | 1940, 12.         |                            |
| 삼각형     | 신세기       | 1941, 1.          | 일명 「처분록」                   |
| 종       | 문장24      | 1941, 2.          |                            |
| 생명선     | 家庭の友      | 1941, 4-8.        |                            |
| 여인      | 춘추2       | 1941, 3.          |                            |
| 隣家訓     | 춘추12      | 1942, 1           |                            |
| 東天缸     | 춘추13-26   | 1942, 2-43, 4.    |                            |
| 市井      | 국민문학5     | 1942, 3.          |                            |
| 저수지     | 半島の光      | 1943, 5-9.        |                            |
| 생활인의 윤리 | 대동출판사     | 1942.             |                            |
| 공간      | 춘추29      | 1943, 6.          |                            |
| 광산촌     | 매일신보      | 1943, 9. 23-11. 2 |                            |

|          |       |                              |                      |
|----------|-------|------------------------------|----------------------|
| 해방       | 신문학   | 1946. 4.                     |                      |
| 개벽       |       | 1946.                        | 실천문학88. 겨울 재록        |
| 인생항로     |       | 1949. 2. 25.                 | 학우사                  |
| 땅        |       | 1948-49, 6. 4.               | 조선인민출판사              |
| 農幕先生     |       | 1950. 4.                     | 조선문화협회 중앙본부<br>(중편집) |
| 김병욱      |       |                              | 6.25전쟁시 후방 인민<br>투쟁  |
| 강안마을     |       | 1954.                        |                      |
| 두만강      |       | 1954(1부), 58(2<br>부), 61(3부) | 제1부 인민상 수상(60.<br>9) |
| 한 너성의 운명 |       | 1963. 4.                     | 항일혁명 운동묘사            |
| 조국       |       | 1967.                        |                      |
| 역사의 새벽길  | 1972. |                              |                      |
| 태양을 따라   | 1984. | 유고집                          |                      |

### 3. 李箕永 研究 關係 資料 目錄

#### 가. 解放 以前 批評

- 金基鎮, 프로문학의 현재 수준, 신동아, 1934. 2.
- 金南天, 지식계급 전형의 창조와 <고향> 주인공에 대한 감상, 조선중앙일보, 1935. 6. 28-7. 4.
- \_\_\_\_\_, 이기영 검토-사상. 작품. 문장, 풍림6, 1937. 5
- \_\_\_\_\_, <인간수업>독후감, 조선일보, 1937, 5, 25.
- 朴勝極, 농민소설집-농민문학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1933, 12, 10-14.
- 林和, 이기영씨 작 '서화', 조선일보, 1933, 7, 19.
- 悞炳徽, 이기영의 작품, 삼천리, 1934, 11.
- \_\_\_\_\_, 춘원의 <흙>과 민촌의 <고향>, 조선문단 23, 1935, 5.
- \_\_\_\_\_, 민촌 <고향>론, 백광 3, 6, 1937, 3, 6.
- \_\_\_\_\_, 민촌 이기영 형과 함광 안중언 군, 청색지5, 1939, 5.
- 박영희, 민촌 이기영론, 동아일보, 1938, 2, 19-20.
- 박승극, 이기영 검토-그의 인간 사상과 작품 문장에 대하여, 풍림 6, 1937, 5.
- 이무영, 민촌의 '서화'를 읽고, 동아일보, 1937, 8, 3.
- 박영희, 민촌의 역작 <고향>을 읽고서, 조선일보, 1936, 12, 1.
- \_\_\_\_\_, 민촌 이기영론-<고향>을 중심으로한 저작, 동아일보, 1938, 2, 19-20
- 백 철, 리얼리즘의 재고, 사해공론9, 1937, 1.
- 송 영, 무언의 인 이기영 군, 문학건설1, 1932, 12.
- \_\_\_\_\_, 내가 본 민촌, 신문학, 1946, 4.
- 宋碩柱, 무언무소의 민촌 이기영씨, 조선일보, 1933, 1, 26.
- 안함광, '로만' 제의의 제문제와 <고향>의 현대적 의의 -장편소설 검토, 인문평론13, 1940, 11.
- 안희남, 단편소설의 세대적 성격-이기영작「설」, 조선일보, 1938, 5, 2.
- \_\_\_\_\_, 3. 4월 창작평-<苗木>의 매력, 조선일보, 1939, 4, 11.
- A기자, 이기영과의 잡담집, 신인문학, 1936, 8.
- 엄홍섭, 이기영 著 <이기영 단편집>, 문장10, 1939, 11.
- 유진오, 이기영씨의 인상, 조선문학15, 1939, 1.
- 윤기정, 이기영씨의 창작집<民村>을 읽고, 조선일보, 1928, 3, 20-23.

이무영, 소설가 아닌 소설가-민촌의 '서화'를 읽고, 동아일보, 1938, 8, 3.  
 이원조, <서화>신간평, 조선일보, 1937, 8, 17.  
 임 화, 소설문학 20년, 동아일보, 1940, 4, 12-20.  
 채만식, 소재와 구성-민촌의 <苗木>과 남천의 <綠星堂>-3월 창작 개관, 동아일보, 1939, 3, 9.>  
 한설야, 포석과 민촌과 나, 중앙 28, 1936, 2.  
 \_\_\_\_\_, 신촌 창작평, -그들의 남매-조선지광, 1929, 2.  
 현 민, 이기영씨의 인상, 조선문학 제15호,  
 한 효, 민촌 연구, 문학예술 3호, 1948, 11.  
 \_\_\_\_\_, 민촌의 「고향」을 예로 들어 , 삼천리, 1936, 4.

#### 나. 해방 이후 논문

김병광, 초기 농민소설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1983.  
 김윤식, 문계적 인물의 설정과 그 매개적 의미 ,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81,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탐, 1987.  
 김일영, 1920년대 희극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 1985, 2.  
 김종대, 민촌소설분석 소고, 연구논집4, 중앙대대학원학생회, 1985, 5.  
 김 철, 1920년대 신경향파 소설 연구, 연대박사, 1984, 12.  
 박대호, 근대 사회의식 소설의 세계관 연구, 서울대석사, 1985, 8.  
 \_\_\_\_\_, <농부 정도롱 구조 분석>, 한국학보46, 일지사, 1987, 봄.  
 =김윤식 외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탐, 1987.  
 서경석, 1920-30년대 한국경향소설 연구, 서울대석사, 1987, 2.  
 \_\_\_\_\_, 리얼리즘소설의 형성, 김윤식 외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탐, 1987.  
 양태진, 월북작가론, 통일정책 4-2, 평화통일연구소, 1978.  
 오양호, 이념지향적 작품군의 구조적 특징,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 사사연, 1986.  
 이재선, 반항의 시학과 상상력의 제한-이기영의 <고향>론, 세계의 문학, 1988., 겨울.  
 이주형, 1920년대 한국프로문학의 한계, 논문집20, 경북대, 1975.  
 \_\_\_\_\_,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박사, 1984, 2.  
 이철주, 북의 예술인, 계몽사, 1966.  
 \_\_\_\_\_, 북한 예술인들의 현주소, 북한, 북한연구소, 1978, 4.  
 정한숙, 해방문단사, 고대출판부, 1980.

- 정호용, 1920-30년대 한국경향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서울대석사, 1983.
- \_\_\_\_\_, 경향소설의 변모과정, 김윤식 외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탑, 1987.
- \_\_\_\_\_, 이기영론: 리얼리즘정신과 농민문학의 새로운 형식, 김윤식 외편.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8.
- 조남현, 1920년대 한국경향소설 연구, 서울대석사, 1974, 1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8.
- 한승욱, 지식인의 귀농의식 재고, 어문논집 24, 25, 고려대 국문과, 1985.
- 한형구, 1930년대 리얼리즘 소설의 성격, 한국학보48, 일지사, 1987, 가을.
- \_\_\_\_\_, 농민소설의 발전과정, 김윤식 외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탑, 1987.
- \_\_\_\_\_, <고향>론, 문학사상, 1988, 9.
- 김윤식, 농촌현실의 형상화와 소설적 의미-이기영의 <고향>,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삼지원, 1989.
- 김 준, 한국 농민소설 연구, 태학사, 1990.
- 정미원, 이기영 <고향>의 작중인물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88.
- 최유찬, 1930년대 한국리얼리즘론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 논문, 1987.
- 임영환, 1930년대 한국 농촌사회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논문, 1986.
- 김승환, 해방공간의 농민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논문, 1989.
- 류양선, 1930년 전후의 한국농민문학론 연구, 1990, 8.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8
- 김종욱, 1920-30년대 한국 농민소설의 발전과정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0.
- 권일경, 이기영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9.
- 신춘호, 한국 농민소설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80.
- 김진석, 1930년대 한국 농민소설 연구-작중인물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0.
- 김윤식, 이기영론, 상, 하-동서문학, 동서문학사, 1989, 8-10월호.
- 김성수, 이기영 초기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전형성, 반교어문2집, 1990.
- 임규찬, <서화>의 작품적 성격과 의의 .
- 한기형, 「고향」의 인물 전형에 대한 연구
- 조남철, 일제하 농민 소설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85.
- 고환석, 1920년대 농민소설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88.
- 김동환, 1930년대 한국 경향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1987.

李柱成, 한국 농민소설 연구,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김홍식, 이기영 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